

정답과 해설

중학교 국어 2-1



1 개성과 표현

• 본문 p.007

확인 문제 01. (1) ○ (2) × 02. (1) ㉠ (2) ㉡ (3) ㉢
03. 관용, 속담

- 01. 운율은 규칙적인 반복에 의해 형성된다. 함축적 의미를 지닌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운율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 02. '반어'는 실제와 반대로 말하는 것, '역설'은 모순된 표현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것, '풍자'는 부정적인 대상을 빗대어 비웃으면서 비판하는 것을 말한다.
- 03. 관용 표현은 많은 사람이 습관적으로 사용하여 굳어진 표현으로, 관용어, 속담, 명언, 격언 등이 이에 해당한다.

1 진달래꽃

개념 확인 목록

• 본문 p.008

01. 운율 02. ③ 03. ② 04. ③

- 01.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을 운율이라고 한다.
- 02. 같은 표현 방법을 반복한다고 해서 운율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 03. 반어는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와 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오답 해설

①은 직유, ③은 과장, ④는 대조, ⑤는 역설에 대한 설명이다.

- 04. ③에서는 '잇었노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잇을 수 없다'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반어의 표현 방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내 마음'을 '호수'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비유(은유)'의 표현 방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다.
- ② '풀'과 '바람'의 유사점을 찾아 둘을 견주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비교'의 표현 방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다.
- ④ '~같이'라는 연결어를 사용하여 '햇빛'과 '샘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비유(직유)'의 표현 방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다.
- ⑤ '강철'의 강인한 이미지와 '무지개'의 화려하고 부드러운

2 | 1. 개성과 표현

이미지가 결합되어 논리적으로는 모순인 것 같으나 그 속에 깊은 진리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역설'의 표현 방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다.

확인 문제

• 본문 p.010

01. ⑤ 02. ③ 03. ③ 04. 눈물을 많이 흘릴 것입니다.

- 01. '영변에 약산 / 진달래꽃'에서 '영변'은 평안북도에 있는 실제 지명으로, 영변의 약산에 피는 진달래꽃을 들어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이 시는 3음보의 민요조 율격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정형시가 아닌 자유시이다.
- ② 이 시는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을 뿐, 시간의 흐름은 드러나 있지 않다.
- ③ 이 시에서 화자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진달래꽃'을 통해 입에 대한 헌신과 사랑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이 시는 애절한 여성적 어조로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 02. 이 시에서 화자는 이별의 상황 속에서 체념의 정서를 보인다. 그러다 곧 진달래꽃을 뿌려 입에 대한 축복과 희생적 사랑을 보이면서 인고의 의지로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있다.

- 03. 이 시에서 대조적인 의미나 이미지를 지닌 시어는 찾아볼 수 없다.

- 04. ㉠에는 실제와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는 '반어'의 표현 방식이 쓰였다.

학습 활동 다지기

• 본문 p.011

이해 다지기 문제 1. ① 2. ②
목표 다지기 문제 1. ③ 2. ③ 3. ①

- 이해 1. 이 시에서 화자는 입과 이별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을 뿐, 현재 입과 이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2. '진달래꽃'은 화자의 분신과 같은 존재로, 입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축복, 정성과 순종 등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에서 입을 잇겠다는 화자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 목표 1. 이 시는 7·5조의 3음보 율격을 바탕으로, 동일한 종결 어미(-우리다)와 시구('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의 반복 및 첫 연과 끝 연의 형태가 유사한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2. 이 시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은 '짜악짜'이라는 의성어이다. 모양을 나타내는 소리인 의태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짜악짜 / 새벽을 깨우는'과 같이 글자 수를 세 글자로 일정하게 맞추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글자 수를 세 글자로 맞추기 위해 '짜악'을 시적 허용에 의해 '짜악짜'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 ④ '짜악짜 / ~을 ~는'이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음악적 효과를 내고 있다.
- ⑤ 이 시는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 등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운율은 반복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는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화자 자신의 심정을 반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①은 역설에 대한 설명으로 이 구절의 표현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소단원 핵심 문제

• 본문 p.015

01. ③ 02. ② 03. ④ 04. ④ 05. 시적 화자의 분신으로, 상대를 향한 사랑을 함축한다. 06. ③ 07. ④
 08. ② 09. ④ 10.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11. ⑤
 12. ③ 13. 3연 14. ⑤ 15. ② 16. ① 17. 3음보의 율격을 사용하여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

01. 이 시의 화자는 이별의 슬픔을 종교가 아닌 입에 대한 축원이라는 정서로 승화시키고 있다.
 02. 이 시는 시의 처음과 마지막을 비슷하게 하여 시적 안정감을 얻는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3. 4연의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는 '눈물을 많이 흘릴 것이다'의 반영적 표현이다. ④의 '슬퍼도 좋다' 역시 '슬퍼서는 안 된다'의 반영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한다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이별의 아픔을 수용할 때 사랑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꽃(이) 피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씁 없이 생성, 순환되는 자연의 질서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대구의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떠돌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역설적, 설의적 표현을 통해 절대적 존재를 위한 희생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04. '사뿐히 즈려밟고'는 원망을 초극한 희생적 사랑을 보여 주는

표현이다.

05. 이 시의 '진달래꽃'과 <보기>의 '꽃'은 모두 상대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06. 시에서 작가는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 시적 화자를 내세워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07. '영변에 약산'과 같이 구체적 지명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할 뿐, 음악성과는 거리가 멀다.
 08. 이 시에서 화자는 이별의 슬픔을 인고의 의지로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09. 이 시의 4연에서는 화자의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입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10. 이 시의 3연에서는 '꽃잎이 짓밟히는 모습'을 통해 이별의 한을 승고한 자기희생적 사랑으로 끌어올리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11. ①은 입이 가시는 길에 꽃을 뿌려 가시는 길을 축복하겠다는 의미로, 불교의 '산화공덕(부처님 앞에 꽃을 뿌려 그 공덕을 비는 일)'을 떠올리게 한다.

오답 해설

- ①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있음을 이르는 말
 - ② 떨어지는 꽃과 흐르는 물이라는 뜻으로, 가는 봄의 경치를 이르는 말
 - ③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
 - ④ 온갖 정과 회포를 뜻하는 말
12. ㉠에서는 반영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입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면 몹시 슬퍼 한없이 울 것이라는 화자의 진심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면서 그 내면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3. 1연의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는 행위, 2연의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는 행위, 4연의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는 행위의 주체는 모두 시적 화자이지만, 3연의 '사뿐히 즈려밟고 가'는 행위의 주체는 입이다.
 14.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라는 말 속에는 입이 떠난다면 너무나 슬퍼 한없이 울 것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입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화자의 진심이 담겨 있다.
 15. 떠나는 사람을 축복하는 역설적인 행동과 죽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반영적 표현을 고려할 때 화자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입과 이별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16. 이 시의 화자는 이별의 슬픔을 승고한 자기희생적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있지만, <보기>의 화자에게서는 그런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해설

- ② 대상에 대한 연모와 축복은 이 시에 드러나 있다. <보기>에는 대상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
 ③ <보기>에는 정중한 부탁이나 기원의 어조가 아니라 위협의 어조가 드러나 있다.
 ④ 이 시의 '사뿐히 즈려뺏고'에 모순 형용이 쓰였다고 볼 수 있지만, <보기>에는 모순 형용이 쓰이지 않았다.
 ⑤ 이 시는 '진달래꽃'이라는 상징적 시어를 통해 화자의 감정을 예들려 표현하고 있지만, <보기>에서는 그러한 표현을 찾을 수 없다.
17. 이 시와 <보기> 모두 3음보의 리듬으로 이별의 정한이라는 전통적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2 열보다 큰 아홉

개념 확인 목록

· 본문 p.018

01. 관용 02. ④ 03. ⑤ 04. ①

01. 관용 표현은 많은 사람이 습관적으로 사용하여 특별한 뜻을 나타내는 표현을 말한다.
 02. 관용 표현은 비유적, 함축적 표현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03. 역설은 겉으로는 모순되어 앞뒤가 맞지 않으나, 그 속에 진리가 담긴 표현 방법을 말한다. ①은 중의, ②는 설의, ③은 풍자, ④는 반어에 대한 설명이다.
 04. '눈물의 홍수'에는 은유법, 과장법이 쓰였다.

확인 문제

· 본문 p.020

01. ③ 02. ① 03. ④ 04. '아홉'은 '열'보다 적거나 적은 수가 아니다. 05. ⑤ 06. ② 07. ④ 08.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홉'은 미래의 꿈과 그 가능성의 수이기 때문에 09. ② 10. ③ 11. ② 12. '아홉'은 미래의 꿈과 가능성을 담고 있는 수이기 때문에 '열'보다 더 클 수 있다.

01. 이 글은 글쓴이의 개인적 생각이 잘 드러나는 수필이다.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써야 하는 글은 설명문이다.
 02. (나)에서 '열'은 '이미 이를 것을 이룩한 완전한 수이며, 성공

을 한 수'라고 하였다.

오답 해설

- ② (나)에서 글쓴이는 '열에 얼마를 더 보태거나 빼거나 한다면 그것은 이미 열이 아닌 다른 수'가 된다고 하였다. 이것이 '열'이 얼마를 더 보태거나 뺄 수 없는 수라는 의미는 아니다.
 ③ (다)에서 '아홉'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열보다 하나가 모자라는 수'라고 하였다.
 ④ '무엇을 하기에 그 이상 좋을 수 없다'는 것은 '십상 좋다'의 뜻으로, '아홉'과는 관련이 없다.
 ⑤ (다)에서 '아홉'은 '완전에 이를 수 없는 수'가 아니라 '완전에 거의 다다른 수, 거기에 하나만 보태면 완전에 이르게 되는 수'라고 하였다.

03. (다)와 (라)는 모두 시작 부분에 묻고 답하는 방식인 문답법을 사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4. (라)에서 글쓴이는 '아홉은 정녕 열보다 적거나 작은 수'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와 관련한 예들을 들고 있다.
 05. '십상 좋다'는 '열'이 이미 이를 것을 이룩한 완전한 수이며, 성공을 한 수라는 것을 보여 주는 예이다.
 06. (마)~(아)에서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두 사물을 '같이, 같은, 처럼, 듯이, 양' 등의 말로 연결하여 직접 비유하는 표현 방법인 직유법이 쓰인 곳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마)의 '~ 쇠어 왔겠습니까.', (바)의 '~ 뜻이 아니었을까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아)의 '열이란 수가 ~ 아주 끝나 버린 수'와 '아홉은 ~ 그 가능성의 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아)의 '아홉은 열보다 많고, 열보다 크고 ~'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바)의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07. ㉠은 관용 표현(격언)으로, 먼저 세워진 기록이 절대 불변의 것이라 생각하여 포기하지 말라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간결하게 전달하고 있다.
 08. 우리 조상들이 숫자 '열'과 '아홉'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찾아본다.
 09. 이 글에서 글쓴이는 다양한 예를 들어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자신을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10. 이 글에서 글쓴이는 꼭 차지 않은 가능성의 수인 '아홉'을 청소년에 대응시켜, 청소년도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미래를

향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 11. ㉠에는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 배치하는 표현 방법인 도치법이 쓰였다. ㉡ 역시 '나라의 운명이 슬프도다.'라는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 표현하였다.

오답 해설

㉠에는 비교법, ㉢에는 반복법, ㉣에는 은유법, ㉤에는 직유법이 쓰였다.

- 12. 글쓴이는 제목의 역설적 표현을 통해 '아홉'은 '열'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욱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학습 활동 다지기

• 본문 p.023

- 이해 다지기 문제** 1. ㉣ 2. ㉠ 아홉, ㉡ 열, ㉢ 가능성
목표 다지기 문제 1. ㉢ 2. ㉤ 3. ㉢ 4. ㉠ 속담, ㉡ 격언
 5. ㉣ 6. ㉡ 7. (1) ㉢, (2) ㉡, (3) ㉠, (4) ㉤, (5) ㉢, (6) ㉡

이해 1.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수'는 '아홉'이다. 나머지는 모두 '열'을 가리킨다.

2. 글쓴이는 '아홉'과 '열'이라는 수가 지닌 뜻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꼭 차지 않은 가능성의 수인 '아홉'을 청소년에 대응시키고 있다.

목표 1. 이 글의 제목에는 '역설'의 표현 방법이 쓰였다. '역설'은 모순된 표현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 방법으로(㉠), 일반적인 생각이나 상식을 벗어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독자에게 신선함을 주고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오답 해설

- ㉠. 실제 뜻과 반대로 표현하는 방법은 '반어'이다. '열보다 큰 아홉'에는 반어가 아니라 역설의 표현 방법이 쓰였다.
- ㉡. '열보다 큰 아홉'의 언어 표현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표현이다.

2. 글쓴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찾자는 것이지 개발을 중단하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3. ㉢은 '값지'만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모순된 표현을 통해 떠나간 임파의 재회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은 설의, ㉡는 활유, ㉣는 과장, ㉤는 반복의 표현 방법이 쓰였다.

4. 관용 표현에는 속담, 관용어, 격언, 명언 등이 있다.

5. 관용 표현은 주어진 상황을 비유적,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6. ㉡의 '귀를 막고'는 손으로 귀를 막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관용 표현이라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 ㉠ '어떤 말이 그럴듯하게 여겨져 마음이 쏠리다.'라는 뜻을 지닌 관용 표현이다.
- ㉢ '어떤 말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 비위가 상하다.'라는 뜻을 지닌 관용 표현이다.
- ㉣ '말을 알아듣게 되다.'라는 뜻을 지닌 관용 표현이다.
- ㉤ '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다.'라는 뜻을 지닌 관용 표현이다.

7. ㉠, ㉡, ㉢, ㉤은 관용어 표현, ㉣, ㉤은 속담에 해당한다.

소단원 핵심 문제

• 본문 p.029

01. ㉣ 02. ㉢ 03. ㉢ 04. ㉣ 05. ㉡ 06. 설의법, 당연한 사실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07. ㉡ 08. ㉢ 09. ㉣ 10. ㉢ 11. ㉡
 12. 역설 13. '아홉'은 미래의 꿈과 그 가능성을 담고 있는 수이기 때문에 '열'보다 더 클 수 있다.

01. (마)에 '아홉'이라는 수에 대해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생각이 나타나 있지만, 서양의 경우와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 ㉠ 이 글에서는 꼭 차서 아주 끝나 버린 수인 '열'과 미래의 꿈과 그 가능성의 수인 '아홉'을 대조하여 '아홉'의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 ㉡ (다)에서 '구만리장천, 구곡간장, 구절양장' 등의 예를 들어 '아홉'이 '열'보다 적거나 작은 수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 ㉢ (마)에서 '열보다'라는 말을 되풀이하여 '아홉'이 '열'보다 의미 있는 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 ㉤ (나)와 (다)의 각 시작 부분에서 문답법을 사용하여 '아홉'이 지닌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02. (다)에서, 아직 나이가 젊어서 앞으로 어떤 큰일이라도 해낼 수 있는 세월이 충분히 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인 '앞길이 구만리 같다'라는 속담을 찾아볼 수 있다.

03. '아홉'은 '열'보다 하나가 모자라는 수이다.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수'는 '열'이다.

04. (라)에서 글쓴이는 '구만리장천, 구만리 같은 사람, 구곡간장, 구절양장, 구중궁궐, 구사일생, 구천, 구경, 구 층 탑'과 같은 예를 들어 '아홉'이 '열'보다 적거나 작은 수가 아님을 말하고 있다.

(2) 열보다 큰 아홉 | 5

05. (마)에서 '아홉'은 '다음, 또 그다음, 그도 아니면 그 다음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의 꿈과 그 가능성의 수'였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사랑하였다고 하였다.

06. ㉠은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07. (가)를 보면,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수는 '열'이 아니라 '아홉'이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 '아홉'은 '열보다 하나가 모자라는 수', 즉 '완전'에 거의 다다른 수라고 하였다.

③ (라)에서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결코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④ (다)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모든 일에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⑤ (나)에서 동양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열보다 아홉을 더 사랑했다'고 하였다.

08. 이 글을 통해 '열'이라는 수가 지닌 의미는 알 수 있지만, '열'과 같은 존재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는 알 수 없다.

09. (바)에서 글쓴이는 '행여 무엇이 남들보다 모자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서글퍼해 온 학생'에게 '열'보다 '아홉'을 더 사랑해 보라고 권유하고 있다.

10. 다음 문단에 나오는 '모든 기록이 반드시 깨어지기 마련인 것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11. ㉠에서는 반복법을 사용하여 '아홉'이 '열'보다 가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에서도 시어나 시구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에는 의인법, 직유법, ③에는 비교법, 대구법, ④에는 설의법, ⑤에는 영탄법, 도치법이 쓰였다.

12. '오래된 미래'에는 표면상으로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진리가 담긴 표현 방식, 즉 역설의 표현 방식이 쓰였다.

13. '열보다 큰 아홉'의 표면적 진술과 내면에 함축된 의미를 생각해 본다.

3 양반전

개념 확인

• 본문 p.032

01. 풍자 02. ㉠ 03. ㉡

01. 풍자란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비꼬아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02. 풍자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음, 말장난, 시치미 떼기, 과장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돌려서 우스꽝스럽게 그려 비판하는 표현 방식이다.

03. 비생산적인 글 읽기만 좋아하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확인 문제

• 본문 p.034

01. ㉠ 02. ㉡ 03. ㉢ 04. 양반, 것이구려 05. ㉠
06. ㉢ 07. ㉢ 08. 벥거지를 쓰고 짧은 잠방이를 입고 길에 엎드려 '소인'이라고 지칭하며 군수를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였다. 09. ㉡ 10. ㉡ 11. ㉢ 12. 부자는 오른편 높직한 자리에 서고, 양반은 공형의 아래에 섰다. 13. ㉢
14. ㉢ 15. ㉢ 16. 하늘이 백성을 낳을 때 백성을 넷으로 구분하였다. 17. ㉢ 18. ㉢ 19. ㉢ 20. 나를 장차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인가.

01. 이 글은 조선 후기 신분제가 동요되던 당시 몰락해 가던 양반의 무능한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는 소설이다.

오답 해설

①, ③ 이 글은 무능한 양반을 풍자하는 데 초점을 둔 글이다.

④ 이 글에서 풍자하고 있는 대상은 경제적으로 무능한 양반 계층이다.

⑤ 가난한 양반이 관아의 곡식을 타먹고 갚지 못하는 사건을 통해 시대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2. 가난하여 관아의 곡식을 타다 먹은 것은 양반의 무능한 모습을 보여 주는 사건으로, 이 소설의 주된 풍자의 대상이 된다.

오답 해설

① 글 읽기가 실생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풍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글 읽기를 좋아한다는 것만으로 풍자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② 양반에 대해 군수가 예를 갖추는 모습이다.

⑤ 양반의 아내가 역정을 낸 것은 양반의 무능함을 비판한 것으로 풍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03. 양반의 아내는 양반의 무능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글 읽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는 배가 불러야 체

면도 차릴 수 있다는 뜻으로, 먹는 것이 중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오답 해설

- ① 자기의 처지가 더 어려움을 이르는 말
- ②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도 사람은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는 말
- ③ 조금 주고 그 대가로 몇 곱절이나 많이 받는 경우를 이르는 말
- ④ 강한 자들끼리 싸우는 통에 약한 자가 중간에 끼어 피해를 입게 됨을 이르는 말

04. 양반 아내의 마지막 말 속에 양반에 대한 풍자 의식이 직접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05. 부자가 가족들과 의논하며 하는 말로 볼 때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하게 대접받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④ 나는 아무리 부자라도 항상 천하지 않느냐라는 부자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⑤ 마을에 사는 부자가 양반 대신 관곡을 갚고 양반 신분을 산 것에서 알 수 있다.

06. 부자가 가족들과 의논하는 부분을 보면 신분이 미천하여 사람들로 부터 천대와 수모를 받는 것 때문에 양반의 신분을 사 고자 함을 알 수 있다.

07. (바)에 나타난 군수의 말을 보면 부자가 양반의 어려움을 도와 준 것을 의롭고 어진 일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이 글의 작가는 양반을 비판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군수는 양반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 ② 부자를 칭송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양반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 ③ 군수는 양반 매매 증서를 몸소 나서서 작성하고 있는데, 이는 지조 있는 선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 ④ 어려움에 처한 양반을 도와주는 인물은 군수가 아니라 부자이다.

08. 양반이 관곡을 갚은 것을 놀랍게 생각한 군수가 양반을 찾아가 양반은 평민들의 옷차림을 하고 군수를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신분을 부자에게 팔았기 때문이다.

09. '매관매직'은 돈이나 재물을 받고 벼슬을 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 글에서 부자가 양반의 관곡을 대신 갚아주고 양반을 사는 것도 일종의 매관매직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10. 증서의 '막걸리를 들이켠 다음 수염을 짚욱 빨지 말고'라는

구절을 보면 막걸리를 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증서를 작성하는 데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다 불러모았다는 뜻이다.
- ③ 양반은 여러 가지로 일컬어진다는 뜻이다.
- ④ 무관과 문관을 통칭하여 양반으로 일컫는다는 의미이다.
- ⑤ 양반이 지켜야 할 법도에 해당한다.

11. ⑤는 아무리 궁하거나 다급한 경우라도 체면을 깎는 짓은 하지 아니한다는 말로,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의 모습을 나타낸다.

오답 해설

- ① 잘 먹은 체하며 이를 쑤신다는 뜻으로, 실속은 없으면서 무엇이 있는 체함을 이르는 말
- ②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스스로 뽑내는 사람을 경계하여 이르는 말
- ③ 윗사람이 잘하면 아랫사람도 따라서 잘하게 된다는 말
- ④ 일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고 때가 있는 것이므로, 아무리 급해도 순서를 밟아서 일해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2. 군수가 증서를 작성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모이게 한 부분을 보면 양반과 부자가 서 있는 위치가 서로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13. 증서의 내용을 다 듣고 난 부자가 한 말 속에 그 이유가 들어 있다. 부자는 양반이 신선 같다고 들었는데 막상 증서의 내용에는 양반이 지켜야 할 법도와 규범만이 있을 뿐 자신에게 이익이 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 ① 부자가 말한 '재미'의 뜻은 즐거운 삶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 이익이 되는 삶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 ② 부자는 미천한 신분으로 인해 천대받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 양반을 산 것이지만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양반을 산 것은 아니다.
- ④ 부자는 양반이 자신에게 실제적 이익을 주기를 바라고 있다.
- ⑤ 증서와 관계없이 양반을 산 것 자체가 미천한 신분에서 벗어난 것이다.

14. ㉠과 ㉡은 양반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 백성들을 수탈하는 횡포에 해당한다.

15. 문과의 흥패가 그야말로 '돈 자루'라는 것은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을 얻게 되면 그 벼슬을 이용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다. 즉 '돈 자루'는 벼슬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음

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16. 두 번째 증서의 첫 문장에서 '백성을 넷으로 구분하였다.'의 '넷'에 해당하는 것이 '사농공상'이다.

17. 이 글은 조선 후기 양반 계층의 무능력과 위선적 태도를 풍자한 소설이다. 부자의 말을 통해 양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알 수 있으며(㉠), 돈으로 양반을 사는 것을 통해 신분 제도가 중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 '반어'란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제와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는 것으로 못한 사람을 보고 '잘났어.'라고 말하는 것 등이다.
- ㉡ 이 글은 소설로 등장 인물은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창조된 인물이다.

18. 이 글에서 부자는 양반의 실체를 깨닫고 양반을 비판하며 양반 되기를 포기하고 있을 뿐, 신분 제도에 저항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 ① 부자는 돈으로 양반을 사서 신분 상승을 꾀하고자 하였다.
- ② 부자가 양반 되기를 포기한 이유는 증서를 통해 양반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 ④ 부자가 양반 되기를 포기하며 한 말인 '도둑놈'이라는 말에는 양반의 횡포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이 드러나 있다.
- ⑤ 마지막에 군수가 읽어주는 증서의 내용을 듣고 양반 되기를 포기하였다.

19. '도둑놈'은 증서에 나타난 양반의 모습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판한 말이다.

20. 부자가 증서를 중지시키며 한 말 속에 양반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이 담겨 있다.

학습 활동 다지기

• 본문 p.039

이해 다지기 문제 1. ㉠, ㉡ 2. ㉢

목표 다지기 문제 1. ㉣ 2. ㉠ 3. ㉣

이해 1. 부자는 신분을 사서 양반이 되려고 하였지만, 양반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양반 되기를 포기하게 되는 인물이다. 군수는 신분 거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부자로 하여금 양반 되기를 포기하게 만들었으므로 부자의 신분 상승을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글에서 양반의 아내는 군수가 아니라 남편인 양반을 꾸짖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 양반이 값을 능력도 없으면서 계속 관곡을 빌려 먹게 되자 그것을 갚기 위해 부자에게 양반 신분을 팔려고 한 것이므로 적절한 질문이다.
- ③ 군수는 부자가 첫 번째 증서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자 부자가 원하는 대로 증서를 다시 고쳐 쓰게 된 것이므로 질문의 내용으로 적절하다.
- ④ 부자는 돈이 많아도 신분이 미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괘시받는 것이 싫어서 양반 신분을 사려고 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질문으로 볼 수 있다.

목표 1. 양반이 자신의 신분을 팔아 빚을 갚는다는 것은 기존 신분제의 질서를 그대로 수용한다는 의미이므로 양반이 신분제의 모순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오답 해설

이 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양반의 모습은 첫 번째 증서와 두 번째 증서에 잘 드러나 있다. 첫 번째 증서에서는 양반의 허례허식, 체면과 형식을 중시하는 태도, 공허한 관념, 현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생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두 번째 증서에서는 양반의 부당한 특권, 서민층에 대한 비도덕적인 수탈, 위선적인 태도 등을 비판하고 있다.

2. 풍자를 통해 비판하면 힘 있는 양반을 우스꽝스럽게 그려 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정적인 대상과 사회 현실을 은근하게 폭로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 읽는 이에 게 쾌감을 줄 수 있다.

3. 이 그림은 식탁 위에서 모든 가족이 스마트 기기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과도한 스마트 기기의 사용과 이에 따른 가족 간의 대화 부재를 풍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족 이기주의란 사회 구성원의 주된 관심사가 가족 집

- 단의 유지에 국한되어 모든 가치가 이를 중심으로 결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림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② 그림의 내용만으로 이를 물질만능주의와 관련짓기 어렵다.
 - ③ 스마트 기기와 정보화 사회는 관련성이 있으나 비도덕적인 모습과 관련짓기는 힘들다.
 - ⑤ 스마트 기기가 등장하기는 하나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상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소단원 핵심 문제

· 본문 p.043

01. ⑤ 02. ② 03.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하며 04. ②
 05. ② 06. 사사로이 팔고 사더라도 증서를 해 두지 않으면 소송의 꼬투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07. ③ 08. ①
 09. ① 10. ③ 11. ⑤ 12. ② 13. ① 14. ③ 15. 양반이 되면 이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증서의 내용을 듣고 양반은 도둑이나 다름없다면서 양반 되기를 포기하였다. 16. ③

01. 이 글에 나타난 양반 신분의 매매는 신분제가 동요되던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오답 해설

- ① 부자가 아니라 양반을 통해 지배 계층의 특권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양반 신분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실은 반영되어 있으나 양반 계층의 몰락 과정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 ③ 신분 제도가 붕괴되던 시대적 현실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당시의 신분 제도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는 않다.
- ④ 부자는 양반의 신분을 사려는 인물로 특별히 양반과 갈등 관계에 있는 인물은 아니다.

02. (가)에서 양반의 아내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양반을 비판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양반이 해마다 관아의 곡식을 꾸어다 먹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능한 양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 ③ 부자의 말에서 양반과 양반이 아닌 계층은 신분에 따라 차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부자가 양반 대신 관곡을 갚아주고 양반 신분을 사는 것을 통해 신분 매매의 사회상을 알 수 있다.
- ⑤ 부자에게 양반의 신분을 팔고 난 후 병거지를 쓰고 짧은 잠방이를 입은 것은 몰락한 양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03. 성품이 어질고 선비로서의 본분인 글 읽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양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04. 양반 아내는 양반의 경제적인 무능함을 ‘한 푼어치도 안 되는’ 양반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경제적으로 무능한 양반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③ 신분 매매의 사회상이 반영된 구절이다.
- ④ ⑤ 신분을 팔고 난 양반의 초라한 행색을 나타낸다.

05. 부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멸시받고 천대받는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사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군수는 부자의 행동을 재물에 인색함이 없으니 의로운 일이며,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니 어진 일이라며 칭송하고 있다(㉡).

오답 해설

- ㉠ 양반이 자신의 신분을 판 것은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동안 꾸어다 먹은 관곡을 갚기 위해서이다.
- ㉡ 군수가 양반 신분 매매와 관련하여 증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신분제 폐지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

06. 군수는 부자가 양반 신분을 사려는 것을 높이 칭송하면서 소송의 꼬투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증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07. 배고픔을 참고 추위를 견딘 것은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할 수는 있지만, 백성들을 위한 행동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 ① 글을 읽으면 선비라고 하였으므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책을 읽는 것은 선비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08. 군수는 부자가 양반을 산 행동을 높이 칭송하고 있다. ‘부자 이면서 ~ 지혜로운 일이다.’에 부자를 칭송하는 이유가 잘 드러나 있다.

09. ‘온고지신’은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라는 뜻이다.

오답 해설

- ②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의미
- ③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는 의미
- ④ 남의 허물도 나에게 교훈이 된다는 의미
- ⑤ 말이 없어도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의미

10. ㉠은 돈벌이와 관련된 일을 천시하는 양반의 모습으로 풍자의 대상이 된다.

11. 이 글의 풍자 대상은 부자가 아니라 양반들의 공허한 관념과 비생산성, 특권 의식이다.

오답 해설

- ① 첫 번째 증서를 들고 부자는 자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 증서를 바꾸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부자는 양반이 되면 실질적인 이익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④ 바꾼 증서의 내용을 듣고 부자는 부자 되기를 포기하였다.
- ③ 증서의 내용을 보면 궁한 양반이 시골에 묻혀 있어도 이웃의 소를 끌어다 쓰는 등 특권을 누렸음을 알 수 있다.

12. (나)의 증서는 양반의 부당한 특권, 서민층에 행하는 비도덕적인 수탈, 위선적 태도 등을 비판하고 있다.

13. 부자는 양반이 신선 같다고 들었다고 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양반이 다른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고 추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②, ③ 문과의 흥패는 돈자루나 다름없다는 구절로 미루어 추측할 수 있다.
- ④ '양반의 이익은 막대하니~'라는 구절로 미루어 추측해 볼 수 있다.
- ⑤ '궁한 양반이 시골에 묻혀 살아도~'라는 문장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14. '무위도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노는 모습으로 ㉠을 드러내기에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말
- ② 억지로 자기에게 이롭도록 꾀한다는 말
- ④ 크게 될 인물은 오랜 공적을 쌓아 늦게 이루어진다는 말
- ⑤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말

15. 이 글에서 부자는 양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증서를 바꾸어 달라고 하였는데, 증서에 나타난 양반의 모습이 도둑이나 다름없자 양반 되기를 포기하고 있다.

16. 이 글과 <보기>는 모두 풍자의 방법으로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연민과 동정을 불러일으켜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 방식은 해학이다.

대단원 확인 문제

• 본문 p.048

- 01. ③ 02. ④ 03. ③ 04.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속뜻 - 눈물을 많이 흘리겠습니다. 05. ④ 06. ④ 07. ④ 08. ② 09. ④ 10. 미래의 꿈과 그 가능성을 믿고 살아갑시다(살아가자). 11. ⑤ 12. ⑤ 13. 양반은 밤낮 올기만 한 채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부자에게 양반을 팔아 관곡을 갚았다. 14. ③, ④ 15. ③ 16. ③ 17. ① 18. ④ 19. ⑤ 20. ③ 21. 부자가 양반 사는(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 22. ④ 23. ④ 24.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25. ④ 26. ④ 27. 작가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28. ④ 29. ① 30. 이훤은 '열'보다 적거나 작은 수가 아니다. 31. ① 32. ④

01. 이 시는 입과의 이별을 가정된 상황에서 반어적 표현을 써서 입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1연에서 화자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체념하고 있으며, 2연에서는 떠나는 입에 대한 축복을, 3연에서는 원망을 뛰어넘는 희생적 사랑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또한, 4연에서는 이별의 슬픔을 참아내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02. 이 시는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이 나타난다.

오답 해설

- ①, ② 1연과 4연에서 '나보기가 역겨워/가실 때에는'이라는 시구가 반복되어 나타난다.
- ③ 1, 3, 4연은 각각 1행이 일곱 자, 2행이 다섯 자, 3행이 일곱 자, 다섯 자로 끊어 읽히며 전체적으로 7·5조의 음운율을 형성하지만, 2연은 1행이 다섯 자, 2행이 네 자, 3행이 여덟 자, 다섯 자로 끊어 읽히며 변형을 보인다. 2연에서 이러한 운율의 변조는 시의 리듬에 변화를 주면서 읽는 이의 주의를 환기하며 시의 정서를 심화시킨다.
- ⑤ '~우리다'라는 어미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03. 이 시에서 '진달래꽃'은 입을 향한 말하는 이의 사랑과 애절한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오답 해설

- ① ㉠은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표현이다.
- ② ㉡은 이별을 체념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④ ㉢은 입의 앞날을 축복하는 행위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⑤ ㉣은 자기희생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04. <보기>는 반어의 뜻과 표현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이 시에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라는 시구는, 속으로는 눈

물을 많이 흘리겠다는 반대의 의미가 들어 있는 반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05. 이 글은 숫자 ‘열’과 ‘아홉’을 비교, 대조하고 있으며, 다양한 예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06. 이 글에서 예시가 쓰인 곳은 (나), (라), (마), (바)이다. (나)에서는 숫자 ‘열’의 특징을 뒷받침하기 위해 ‘십상 좋다’라는 예를 들고 있으며, (라), (마), (바)에서는 ‘아홉’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를 들고 있다.
07. ㉠, ㉡ 모두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
08. 글쓴이는 청소년 시기를 숫자 ‘아홉’이 갖는 의미에 빗대어, 청소년 시기는 ‘아홉’이라는 수처럼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미래를 향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09. 글쓴이는 (다)에서 ‘모든 기록을 깨어지기 위해서 있다.’라는 관용 표현(격언)을 활용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아홉’이 ‘열’보다 많고 큰 수라는 논리적 모순을 활용하고 있다.
10. (라)에서 글쓴이는 ‘아홉’은 미래의 꿈과 그 가능성의 수라고 말하면서, (마)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이제부터라도 ‘열’이란 수보다 ‘아홉’이라는 수를 더 사랑해 보라고 말하고 있다.
11. ㉠은 관용 표현으로 관용 표현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표현이 사용된 맥락이나 상황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양반이 어질고 글 읽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는 것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13. (나)에서 ‘양반 역시 밤낮 울기만 ~ 찾지 못하였다.’에는 현실 문제 해결에 무능한 양반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고, (라)에는 부자에게 신분을 팔아 관곡을 갚은 행동이 나타나 있다.
14. <보기>의 ‘장죽’은 양반의 신분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이 글에서 ‘병거지’와 짧은 ‘잠방이’는 양반이 자신의 신분을 팔고 난 후 신분이 낮아진 모습을 드러내는 소재들이다.
15. 군수가 양반 매매 증서를 써 주면서 사사로이 팔고 사더라도 증서를 해 두지 않으면 소송의 꼬투리가 될 수 있다고 한 말로 미루어 볼 때 ㉢는 추측이 가능하다. ㉣는 관곡을 타다 먹은 양반이 그것을 갚지 못해 양반 신분을 파는 모습을 통해

추측이 가능하다.

16. 야비한 일을 끊고 옛일을 본받고 뜻을 고상하게 한다는 것은 양반으로서 인품을 드높이는 일로 볼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17. 이 글에서 군수는 남의 어려움을 도와준 부자의 행동을 칭송하고 있다.
18. 부자는 증서에 나타난 양반의 부당한 특권, 서민층에 향하는 비도덕적인 수탈, 위선적 태도를 보고 양반 되기를 포기하고 있다.
19. 증서의 내용으로 인해 부자는 양반 되기를 포기하게 되지만, 신분 제도의 모순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절망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② 부자는 1차 증서의 내용을 듣고 실망했기 때문에 군수에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증서 내용을 바꾸어 달라고 말하였다.
- ③ 2차 증서의 주된 내용은 양반의 무위도식, 백성들에 대한 수탈과 횡포이다.
- ④ ‘도둑놈’이라는 말에는 양반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들어 있다.
20. ㉠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계층이 정해져 있다는 관점이 나타난다. 그런데 ㉢에는 ‘왕후장상의 씨 없다’에 드러나듯이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의식이 나타나 있다.
21. 군수는 겉으로는 무능한 양반을 대신하여 빚을 갚아 준 부자를 칭찬하고 양반 매매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자세를 취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부자가 양반이 되는 것을 은근히 방해하고 있다.
22. (가)의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와 (나)의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라는 부분에서 문장의 순서를 도치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만 운율이 느껴지는 시이다.
- ② (나)만 역설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 ③ (가)에서는 입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반어의 방법으로 강조하여 표현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⑤ (다)는 부정적인 현실이나 대상을 던지시 돌려 비판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23. 3음보가 일정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정형시(원래 존재하는 형식적 틀에 맞추어 창작된 시)가 아니라 자유시이다.

오답 해설

- ① 1연과 4연이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③ 여성 화자를 내세워 애절한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각 연은 3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행의 길이가 연마다 일정하다.
- ⑤ '이별의 정한'이라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를 3음보 민요조 울격에 담아내고 있다.

24. '모든 일에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문장에 담긴 의미를 풀이한 부분에서 답을 찾으면 된다.

25. ①, ②, ③, ⑤는 양반의 체면과 허례허식에 대한 풍자, ④는 백성을 괴롭히고 수탈하는 양반의 모습에 대한 풍자로 볼 수 있다.

26. ㉠은 증서의 내용으로 양반의 비생산성과 허례허식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는 양반의 자식은 어려서부터 남과 달리 훌륭하게 자란다는 말로 ㉠을 드러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양반은 위신을 지극히 생각한다는 말
- ② 양반은 체통을 차리느라고 없는 기색을 내지 아니한다는 말
- ③ 아무리 궁하거나 다급한 경우라도 체면을 깎는 짓은 하지 아니한다는 말
- ⑤ 아무리 위급한 때라도 체면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말

27. 문학 작품에서는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한다.

28. ④에는 이 시와 마찬가지로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나에게 그대를 생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를 사소한 일이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갈대'를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 ② '구름'을 '장미'에 빗댄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 ③ '괴로웠던'과 '행복한'을 병치한 모순 형용이 사용되었다.
- ⑤ '생의 감각'이란 추상적 의미를 구체화한 표현이 사용되었다.

29. ①은 (다)처럼 탐관오리의 횡포와 농민들의 고초를 드러내고 있는 시이다.

오답 해설

- ② 고려의 충신 정몽주가 이방원의 <하여가>에 답하기 위해 쓴 시조로, 백골이 흙먼지가 되고 혼까지 없어진다 해도 고려의 신하된 도리를 다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진 시조이다.
- ③ 낙엽 위에 앉아 돌아오는 새달을 바라보면서, 박주산체를 벗삼아 이 밤을 유쾌히 보내리라는 내용의 시조이다.
- ④ 대나무를 의인화하여 고려 왕조에 대한 절개를 나타낸 시조이다.
- ⑤ 가을에 홀로 피는 국화를 지사(志士)의 절개에 비유하여 기린 노래이다.

30. 구만리장천, 구곡간장, 구절양장, 구중궁궐, 구사일생 등의 예를 통해 글쓴이는 '아홉'이라는 수가 결코 '열'보다 적거나 작은 수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다.

31. '구사일생'은 아홉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난다는 뜻으로,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겪고 간신히 목숨을 건짐을 이르는 말이다.

32. 이 글에서 부자가 현실 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발음은 정확히, 글은 바르게

· 본문 p.057

확인 문제 01. 정확한 국어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02. ⑤ 03. ②

01. 표준 발음법에 따른 정확한 발음은 정확한 국어 생활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02.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03. 글을 완성하기 전에도 수시로 고쳐쓰기를 할 수 있다.

1 정확한 발음과 표기

개념 확인 목록

· 본문 p.058

01. 의사소통, 표준 발음법 02. ② 03. ㉠ 술 ㉡ 가르쳐 주신

02. 표준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03.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을 알게 하는 것은 '가르치다'이다.

확인 문제

· 본문 p.060

01. ③ 02. ⑤ 03. 영지가 [대그로]로 발음해야 할 것을 [대구로]로 발음하여 '대구로' 간 것으로 민호가 오해했기 때문이다. 04. ③ 05. ③, ⑤ 06. ④ 07. ⑤ 08. ②

09. ⑤ 10. ① 11. ① 12. ⑤ 13. ① 14. ⑤ 15. [장:네식짱], [예식짱], [예의/예이] 16. ① 17. ④

18. [지여계], [대설주의:보] / [대설주이:보] 19. ③ 20. ③ 21. ⑤ 22. ③ 23. ③ 24. ④ 25. ⑤ 26. ①

27. ③ 28. ㉠ [키옥], ㉡ [닥따], ㉢ [집], ㉣ [뽕:따] 29. ① 30. ③ 31. ⑤ 32. ④ 33. ④ 34. ③ 35. ㉠

넓둥글다 ㉡ 뽕:따 ㉢ 뽕:따 36. ② 37. ⑤ 38. ⑤ 39. ① 40. 달게게는 41. ⑤ 42. ① 43. ② 44. ③

45. ⑤ 46. ⑤ 47. ④ 48. ㉠ 뽕:러 → 뽕:러, ㉡ 되서 → 돼서, ㉢ 꺾면서 → 꺾면서 49. ④ 50. ③ 51.

(1) 줄일 → 조릴, 조린다 → 줄인다 (2) 곱배기 → 곱빼기 (3) 제단해야 → 재단해야 52. ② 53. ② 54. ① 55. 날

지 → 낫지. 문맥상 미선은 개의 병이 치유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전달하려 했던 것이므로 '낫지'가 아니라 '낫지'로 표기해야

바른 표기가 되기 때문이다. 56. ③ 57. ㉠ 웬일 → 웬일 ㉡ 웬지 → 웬지

01. 표준어와 방언은 우열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각각 장단점을 지닌다.

오답 해설

④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은 교양을 갖추고 있음을 알려 주는 표지가 된다.

02. <보기>의 사례는 잘못 발음하여 의사소통에 혼란이 일어난 예이다.

03. 영지의 잘못된 발음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다.

04. '역사'에서 '기' 뒤에 오는 '시'은 된소리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① 가시[가시], ② 소주[소주], ④ 주꾸미[주꾸미], ⑤ 공짜[공짜]가 옳은 발음이다.

05. '되어[되어], 피어[피어], 이오[이오], 아니오[아니오]'는 예외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다.

오답 해설

①, ④ '골짜기'와 '구겨진'은 어두 경음화가 허용된 단어가 아니므로 [골짜기], [꾸겨진]으로 발음하지 않는다. ② '기역'은 표기대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

06. '거꾸로'는 어두 경음화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불법[불법/불뽕], ② 교과서[교:과서/교:파서], ③ 효과[효:과/효:과], ⑤ 인기척[인기척/인끼척]은 복수 발음이 허용된 경음화의 예이다.

07. '레'는 [레]로 발음해야 한다.

08. '계산[계:산/계:산], 예절[예절], 개폐[개폐/개폐], 은혜[은혜/은혜]'로 발음된다.

09. '의'로 쓰여 단어 첫 글자에 나오는 경우에는 [니]로 발음되므로, '의사'는 [의사]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는 '니'는 [니]로 발음되므로 '꽃무늬'는 [꼇무니]로 발음해야 한다.

② 조사 '의'는 [니, 이]로 발음되므로 '우리의'는 [우리의/우리에]로 발음해야 한다.

③ '의'로 쓰였으나 단어 첫글자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니, 이]로 발음되므로 '주의'는 [주의/주이]로 발음해야 한다.

(1) 정확한 발음과 표기 | 13

④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는 ‘니’는 ‘ㄴ’로 발음되므로, ‘희망’은 [희망]으로 발음해야 한다.

10. ‘의리’는 [의리]로만 발음된다.

11. 같은 대상을 서로 다르게 발음하는 등의 현상으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오답 해설

‘개성 표현’, ‘또래 문화 형성’, ‘정서 표현’, ‘집단의 결속력 고취’ 등은 표준 발음의 기능으로 보기 어렵다.

12. 단어 첫 글자에 나오는 ‘니’는 [니]로만 발음한다.

13. ‘예’와 ‘레’의 ‘ㄱ’은 [ㄱ]로만 발음된다.

14. ‘예, 레’의 ‘ㄱ’은 [ㄱ]로 발음해야 하므로 ‘허레’는 [허레]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해설

‘예, 레’ 이외의 ‘ㄱ’은 [ㄱ]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ㄱ]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① 계산이[계:사니/계:사니], ② 폐지[폐:지/폐:지], ③ 예산을[예:사늘], ④ 세계[세:계/세:계]로 발음해도 된다.

15. ‘예’와 ‘레’의 ‘ㄱ’은 표기대로 발음하여야 하며, 단어의 첫 글자 이외의 ‘니’는 [니]로도 발음할 수 있다.

16. ‘예, 레’ 이외의 ‘ㄱ’은 [ㄱ]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ㄱ]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계주’는 [계:주]로 읽을 수 있다.

17. ‘센바람’은 [센:바람]으로 발음해야 한다.

19.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된다.

20. 음절의 끝소리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다.

21. 겹받침 ‘ㄱ’은 음절의 끝에서 ‘ㄱ’으로 발음되므로 ‘뫼’는 받침소리가 [ㄱ]으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트, 츠, 즈, 스’은 음절의 끝에서 받침소리가 ‘ㄷ’으로 발음된다. ① 솔[솔], ② 꽃[꽃], ③ 빗[빗], ④ 옷[옷]

22. ‘시옷’은 [시옷]으로 발음한다.

23. 숲 → [숲], 낫 → [낫]으로 발음되므로 표기와 발음이 같지 않다.

24. ‘쓰, 즈’의 대표음은 [ㄷ]이다.

25. 쫓다[쫓따], ‘츠’은 음절의 끝소리에서 [ㄷ]으로 발음된다.

14 | 2. 발음은 정확히, 글은 바르게

26. ‘아빠’는 표기대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받침들은 대표음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②는 꽃잎[꽃닙] → 쫓닙], ③은 먹고[먹꼬], ④는 무릎[무릅], ⑤는 시옷[시옷]으로 발음된다.

27. ‘갓’은 [갓]으로 발음한다.

28. 음절의 끝소리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개로 ‘ㄱ, ㄴ’은 [ㄱ], ‘ㅁ’은 [ㅁ], ‘ㄷ’은 [ㄷ]으로 발음해야 한다.

29. ‘리’은 뒤 자음이 소리나는 겹받침으로 ‘읽다’는 [익따]로 발음해야 한다.

30. ‘리’은 일부 예외(용언이 활용할 때 ‘ㄱ’ 앞에서 [ㄹ]로 발음)를 제외하고는 뒤 자음이 소리 나는 겹받침이므로 ‘맑다’는 [막따]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뫼’, ‘쫓’, ‘웃’, ‘쓰’은 모두 앞 자음이 소리 나는 겹받침으로 짚다[짚따], 뚫다[뚫타], 끊다[끊타], 갓지다[갓찌다]로 발음한다.

31. ‘뫼’은 뒤 자음이 소리 나는 겹받침이므로 ‘읽고’는 [익꼬] → [익꼬]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

오답 해설

①, ③ ‘뫼’과 ‘뫼’은 앞 자음으로 소리 나는 겹받침이므로 뫼다[뫼따]와 할다[할따]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

② ‘리’은 일부 예외(용언이 활용할 때 ‘ㄱ’ 앞에서 [ㄹ]로 발음)를 제외하고는 뒤 자음이 소리 나는 겹받침이므로 ‘늑지[늑찌]’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

③ ‘뫼’은 앞 자음이 발음되므로 할다[할따]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

④ ‘뫼’은 ‘뫼-’ 뒤에서는 예외로 뒤 자음이 소리 나므로 ‘뫼고[뫼꼬]’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

32. ‘리’은 용언으로 활용할 때 ‘ㄱ’ 앞에서 [ㄹ]로 발음되므로 ‘맑고’는 [말꼬]로 발음해야 한다.

33. 받침 ‘뫼’은 본래 [ㄹ]로 발음하는 것이지만 ‘뫼다’의 ‘뫼-’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는 [ㅂ]으로 발음하여 [뫼따]가 된다.

34. ‘뫼다’의 받침 ‘리’ 뒤에 ‘ㄱ’이 아닌 ‘ㄷ’ 자음이 오므로 [박따]로 발음된다.

36. ‘뫼다[뫼따], 뫼둥글다[뫼뫼글다]’로 발음되므로, ㉠은 [ㄹ]로, ㉡은 [ㅂ]으로 소리 난다.

37. '을'과 '에'는 조사이므로 받침이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된다. '앞'은 실질 형태소이므로 '닭'의 받침이 대표음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된다.

38. 받침 있는 말 뒤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에는 앞 받침을 뒷말의 첫소리로 발음한다. 따라서, '꽃이'는 [꼬치]로 발음된다.

오답 해설

'ㅌ, ㅍ(ㅍ), ㅈ'은 음절의 끝에서 [ㄷ]으로 소리 난다. ①은 굶다[금따], ②는 갖다[갓따], ③은 맛다[만따], ④는 받도[받포]로 소리 난다.

39. '여덟'은 [여덟]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②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겹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③~⑤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에는 뒤엿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40. '닭' 뒤에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 모음이 오므로 겹받침 중 뒤의 'ㄱ'은 뒤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한다.

41.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말과 결합되면 원래의 소리대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 따라서 '햇볕'은 [해뻬뜰]로 발음해야 한다.

42. '뺨-'은 자음 앞에서 [뺨]으로 발음하므로 [뺨:꼬]로 발음해야 한다.

43. ㉠은 '넓고 넓은[널꼬닐븐]', ㉡은 '값을[갑쓸]', ㉢은 '뿔 외에 [모괴에]'로 발음해야 한다.

44.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겹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므로 '닭 울음'은 [다구름]으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뒤에 오는 말이 의미를 안 지니므로 원래의 소리 그대로 이어져 '팔을[파뜰]로 발음해야 한다.

② 뒤에 오는 말이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므로 받침이 대표음으로 바뀐 뒤(꽃 → 꼰) 이어져 '꽃 위에[꼬뒤에]'로 발음해야 한다.

④ 뒤에 오는 말이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므로 받침이 대표음으로 바뀐 뒤(맛 → 맘/ 없는 → 업는 → 업는) 이어져 맛없는[마뎌는]으로 발음해야 한다.

⑤ 'ㅎ'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는 경우 'ㅎ' 소리가

탈락되므로 '쌍은[싸은]'으로 발음해야 한다.

45. 'ㄱ'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내, 썼'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46. ⑤에서 '돼는'은 '되+는'이므로 '되는'으로 써야 옳다.

47. '뵈어요'를 준 대로 적으면 '뵈요'가 된다.

48. ㉠ '씩다'는 '쏘이다'의 준말이므로 '씩러'로 표기해야 한다. ㉡ '되어서'의 준말은 '돼서'이므로 '되서'를 '돼서'로 고쳐야 한다. ㉢ '찌다'는 '조이다'의 준말이므로 '찌면서'로 표기해야 한다.

49. ① '차들박이', ② '된장찌개', ③ '주꾸미', ⑤ '오이소박이'가 바른 표기이다.

50. '조림'과 '졸임'은 발음이 같아 표기를 혼동한 사례에 해당한다.

52. ②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데'는 과거에 직접 경험한 내용을 표현할 때 쓰고, '-대'는 남의 말이나 경험을 전달하는 표현이므로 ①은 '내린대', ③은 '떠난대', ④는 '매진이데', ⑤는 '보이데'로 바꾸어 써야 바른 표기가 된다.

53. ②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므로 '온대?'로 표기해야 한다.

54. ①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따라서 '바램'이 아니라 '바라다'의 명사형인 '바람'이 쓰이는 것이 옳다.

55. '냥지'는 문맥상 '낮지'를 잘못 표기한 것이다.

56. ①, ②는 '왜 그런지 모르게 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의 의미이므로 '웬지'로, ④는 '어찌 된 일'의 의미이므로 '웬일'로, ⑤는 '어떠한'의 의미이므로 '웬'으로 바꾸어 써야 한다.

57. ㉠ '어떠한 일'의 의미이므로 '웬일'을 '웬일'로 고쳐 쓰는 것이 맞다. ㉡ '왜 그런지 모르게'의 의미이므로 '웬지'를 '웬지'로 고쳐 쓰는 것이 맞다.

창의·융합 활동

• 본문 p.075

01. ㉠ 02. ㉠ 03. 꼬츠로도

01. 표기와 발음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이 드러나 있지만 이를 상징적 언어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02. 표기는 누구나 쉽게 그 발음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주장

(1) 정확한 발음과 표기 | 15

하는 글이다. 따라서 글쓴이는 맞춤법에 어긋나게 표현하는 것을 긍정하고 있지 않다.

03. ‘꽃’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므로 받침소리를 연음하여 발음한다.

소단원 핵심문제

· 본문 p.078

01. ⑤ 02. ④ 03. ① 04. ① 05. ① 06. ③
 07. ① 08. [포경특뵐], [계:속 / 계:속], [비스타겔따] 09. ③
 10. ③ 11. ⑤ 12. ㉠ [마딤따 / 마신타] ㉡ [마딤따], ㉢ [머딤따 / 머신타] 13. ③ 14. ② 15. ③ 16. ①
 17. ② 18. ③ 19. ① 20. ⑤ 21. ① 22. [말꼬
 널꼬밭근], [밭:꼬] 23. ④ 24. ⑤ 25. ② 26. ③
 27. ③ 28. ②

01. ‘니’가 단어 첫 글자에 나오는 경우에는 항상 [니]로 발음해야 한다.
 02. 표기는 조사의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써야 한다.
 03. ①은 [기억]으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해설

‘피어[피어], 되어[되어], 이오[이오], 아니오[아니오]’는 예외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다.

04. ①은 ‘밭[반]’으로 발음해야 한다.
 05. ‘ㄱ, ㄷ, ㅂ’ 소리 뒤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 소리는 된소리로 발음된다. ㉠ 늦봄[늦뵐], ㉡ 공짜[공짜], ㉢ 돌술밥[돌숯뵐]
 06.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는 ‘니’는 [니]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희망’은 [희망]으로 발음해야 한다.
 07. ‘예’와 ‘레’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네’가 나오면 [네]로 읽을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예’는 [예]로만 발음해야 한다.
 ③ ‘경신’은 표기대로 발음해야 한다.
 ④ 둘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 중에서, [ㅎ] 음이 첨가되어 발음되는 단어는 소리 나는 대로 (뒤 단어의 첫소리를 거센소리로) 적도록 하였다. 따라서 ‘안팎’으로 표기해야 한다.
 ⑤ 모음 ‘ㅡ’를 원순모음으로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08. 받침소리는 다음 모음 소리 앞에서 연음된다(포경특뵐). ‘예, 레’ 이외의 ‘네’는 [네]로도 발음한다.(계:속 / 계:속). 받침소리 ‘ㄷ’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트]으로 발음된다.(비스타겔따)

16 | 2. 발음은 정확히, 글은 빠르게

09. ‘츠’의 대표음은 [ㄷ]이다.

10. ①은 [비출], ②는 [나치], ④는 [바들], ⑤는 [해뻬테/헨뻬테]로 발음해야 한다.

11. ‘웃’은 뒤에 자음이 오거나 단독으로 발음될 때, 또 뒤에 실질 형태소인 모음이 올 때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을 받으나 뒤에 형식 형태소인 모음이 올 때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2.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다만, ‘맛있다, 멋있다’는 [마신타], [머신타]로도 발음할 수 있다.

13. ‘넓다[널따]’의 ‘넓-’은 [널]로 발음한다. 다만 ‘넓죽하다’, ‘넓둥글다’, ‘넓적다리’는 [넙쭈카다], [넙똥글다], [넙쩍따리]로 발음한다.

14. ②는 ‘닭이[달기]’로 발음해야 한다.

15.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이 올 경우 그 모음이 조사나 어미 등의 형식 형태소일 경우에는 받침소리가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된다. 그러나 뒤에 오는 음절이 실질 형태소일 경우에는 받침소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적용을 받은 후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꽃이’는 [꼬치]로, ‘꽃 안에는’ [꼬다네]로 발음해야 한다.

16. ‘값을[갑쓸]’의 겹받침 ‘ㅃ’ 중 ‘ㅂ’은 앞말의 끝소리로, ‘ㅅ’은 뒷말의 첫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17. ‘넓적한, 엇저녁, 깎두기, 적잖은’으로 써야 한다.

18. ‘맑다’의 경우 어간 말음인 ‘ㄹ’은 자음 ‘ㄷ’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

19. ‘맑고’는 [말꼬]로 앞의 자음 ‘ㄹ’이, ‘맑다’는 [막따]로 뒤의 자음 ‘ㄱ’이 발음된다.

20. ‘위, 아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받침소리는 ‘ㄷ’으로 나고, ‘예’는 조사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으므로 앞말을 이어서 ‘트’ 그대로 발음된다.

21. ‘ㅎ’이 ‘ㄱ, ㄷ, ㅈ’과 결합되는 예이다. ‘농고[노꼬], 종턴[조:턴], 쌓지[싸치]’으로 발음된다.

22.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겹받침 ‘ㅃ’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다만 ‘뵐-’은 자음 앞에서 [뵐:]으로 발음한다.

- 23. '죄었다'를 준 대로 적으면 '궤다'가 된다.
- 24. '주꾸미'가 바른 표기이다.
- 25. 각각 ①은 '잘하던데', ③은 '춥더라', ④는 '가든지 오든지', ⑤는 '배든지 사과든지'로 바꾸어 써야 한다.
- 26. '낱다'는 '배 속의 아이, 새끼, 알을 몸 밖으로 내놓다.', '낫다'는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의 의미이다.
- 27. ①은 '부쳤어', ②는 '나았어', ④는 '뭉고', ⑤는 '바람'으로 고쳐 써야 옳은 표기가 된다.
- 28. ②는 '어찌 된'을 의미하는 '웬'으로 써야 한다.

2 쓴 글을 돌아보며

개념 확인 목록

• 본문 p.082

01. 이해 02. 흐름, 문장 03. ② 04. ⑤

- 01. 고쳐쓰기를 할 때에는 독자의 수준이나 흥미도를 고려해야 한다.
- 03. 글을 완성하기 전에도 수시로 고쳐쓰기를 할 수 있다.
- 04. 글쓴이의 지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읽는 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써야 한다.

확인 문제

• 본문 p.084

01. ⑤ 02. ② 03. ③ 04. ④ 05. ① 06. ③
 07. ④ 08. 사람들이 현실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는 요지의 문단이므로 도덕적 성장을 위해 공부한다는 내용은 어울리지 않는다. 09. 마지막 문장 → 그것은 지난번에 성적이 많이 올라 휴대 전화를 바꿀 수 있었고 더는 공부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10. ② 11. ① 12. 지금은 내가 장차 무엇이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 지금은 내가 장차 무엇이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좀처럼 알지 못한다. 13. ⑤ 14. ② 15. ⑤ 16. ② 17. ⑤ 18. ② 19. 스스로 미래에 대한 대비를 모두 할 수는 없다. 20. ① 21. ③ 22. ② 23. ⑤ 24. ⑤ 25. ④ 26. ④ 27. ② 28. '비만이'를 '비만 인구'로 고쳐야 한다. 29. ④ 30. ① 31. ⑤ 32. ④ 33. ③ 34. 제롬의 노력의 목표는 오로지 알리사의 덕에 견줄 만한 청년이 되는 것뿐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제롬은 속세의 온갖 즐거움을 내버리고 성서에서 가르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괴로움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 01.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독자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 02. 글을 쓰는 중에도 계속해서 고쳐쓰기를 할 수 있다.
- 03. 주제는 글 전체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 04. 학생을 대상으로 공부해야 하는 까닭을 말하고 있는 글이다.
- 05. 읽는 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목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 06. 표기나 띄어쓰기가 잘못된 단어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은 문장 수준에서 고쳐 쓰는 방법이다.
- 07. <보기>의 내용은 공부를 해야 하는 진정한 까닭에 해당하므로 (다)와 (라)의 사이에 넣어 결론을 이끌어 내는 근거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
- 09. 공부에 대한 의욕이 떨어진 것은 더 이상 현실적인 이익이 없었기 때문이므로 마지막 문장은 그와 같은 취지가 담긴 문장으로 고쳐 써야 한다.
- 10. 한 문단에 하나의 중심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 적절한 내용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11. '공부해서'와 '공부를 하는'이 중복되므로 둘 중 하나를 삭제하여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② 주어는 생략되어 있다.
- ③ 부적절한 단어가 쓰이지는 않았다.
- ④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는 자연스럽다.
- ⑤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의미 파악이 어렵지 않다.

- 12. '좀처럼'은 '여간해서는'의 뜻을 갖는 부사로 부정문 형태의 서술어와 호응한다.
- 13. 문장 성분을 지나치게 생략하면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나타낼 수 없다.
- 14. 반드시 글을 완성한 후에 고쳐쓰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5. 동일한 내용이 반복될 경우 삭제한다.
- 16. 문단 내의 통일성을 점검하는 것은 문단 수준의 고쳐쓰기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①, ③, ⑤ 글 전체 수준에서 고려할 점이다.
- ④ 문장 수준에서 고려할 점이다.

- 17. 학교 신문에 실을 글이니 공식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독자를 고려해 어려운 표현은 쉽게 고치는 것이 좋다.

- 18. 공부를 하면 얻을 수 있는 현실적 이익은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므로 더 이상 자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없다.
- 19. 마지막 문장은 공부를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대비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미래를 위한 대비 중 가장 좋은 것이란 뜻이다.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 문장을 변형하면 된다.
- 20. 대한비만학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등을 근거로 청소년 운동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핵심 용어의 개념을 풀이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전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주장을 펼치는 글이다.
- ④ 현상의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피고 있지는 않다.
- 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는다.
- 21. 청소년 운동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로, 주장의 근거로 청소년 비만의 심각성 등을 언급하였다.
- 22. 성인 비만에 대한 내용은 주제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글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
- 23. 청소년 비만의 주요 원인으로 운동 부족만을 꼽고 있다.
- 24. 청소년 비행 문제는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다루지 않는 것이 좋다.
- 25. 운동이 청소년 비만 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다.

오답 해설

- ① 성인 비만을 다루고 있지 않다.
- ② 비만과 학습 능력의 관계는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다.
- ③ 비만 외의 건강을 해치는 생활 습관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다.
- ⑤ 비만 외의 각종 질병에 대한 내용은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다.
- 26. 글을 쓸 때에는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 편의 글을 작성하여야 한다.
- 27. 이 글은 글쓴이의 주장을 담은 논설문이므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글쓴이의 주장이 잘 드러나도록 써야 한다.

오답 해설

- ①은 시사문, ③은 문학 작품, ④는 설명문, ⑤는 기사문을 쓸 때 주의할 점이다.
- 28. 문장의 호응을 고려할 때, '급격히 늘고 있다'의 주어는 '비만 인구'가 되어야 한다.

18 | 2. 발음은 정확히, 글은 바르게

- 29. 발자크는 조판을 한 뒤에도 고쳐쓰기를 멈추지 않았다.
- 30. 이 글은 고쳐쓰기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 31. 문학 작품은 누구나 아는 익숙한 표현보다는 참신하고 개성적인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 좋다.
- 32. 고쳐쓰기를 한다고 글 쓰는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며, 글 내용을 단순화시키는 방향으로만 글을 고쳐 쓸 필요도 없다.
- 33. 고치기 전에는 주어 '나는'과 서술어 '감정이었다'가 서로 호응을 이루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① 고쳐쓰기 전에도 시제의 호응이 어색하지 않았다.
- ② 고쳐쓰기 전에도 높임법의 호응이 어색하지 않았다.
- ④ 목적이 '집을'과 서술어 '바라다본'의 호응은 자연스럽다.
- ⑤ 문장 도중에 주어가 바뀌지는 않았다.
- 34. 심표를 경계로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바뀌고 있는데 바뀐 주어를 생략하면서 비문이 되었다. 뒤 절의 주어인 '제롬'을 명시해 주어야 한다.

소단원 핵심 문제

· 본문 p.097

01. ③ 02. 공부하는 까닭 03. 또는 공자나 맹자처럼 자기 수양을 위해 공부를 하기도 한다. 04. ③ 05. ④ 06. ② 07. ② 08. ② 09. ⑤ 10. ②

- 01. 고쳐쓰기는 글을 쓰는 과정 중에서도 일어나는 활동이다.
- 02. 진희는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공부하는 까닭'에 대한 글을 쓴 것이다.
- 03. 사람들이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공부한다는 내용의 문단이므로 도덕적 성장을 위해 공부한다는 내용은 어울리지 않는다.
- 04. '공부해서'와 '공부를 하는'이 중복되므로 고쳐 쓰는 것이 좋다.
- 05. '요새'는 '요사이'의 준말로 적절한 표현이다.

오답 해설

- ① '틀리다'는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라는 뜻이고, '다르다'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라는 뜻이다.
- ② 사이시옷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한자어인 ⑥ '대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06. 이 글에서는 '이러한 청소년 비만이 왜 생기는 것일까?'라고 질문하며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ㄱ). 또한, 대한비만 학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를 들어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ㄴ).
07. ㉠은 비만과 관련 없는 질병에 대한 내용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08.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글이므로 어려운 전문 용어를 많이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09. 청소년의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운동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인데, ㉤는 오히려 운동장의 주차장 활용 가능성을 다룬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결론에서는 자신의 주장 및 앞에서 나온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오답 해설

㉢, ㉣ 이 글에서는 운동과 비만이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식습관과 비만'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은 통일성을 떨어뜨린다.

대단원 확인 문제

· 본문 p.100

01. ⑤ 02. ⑤ 03. ④ 04. ⑤ 05. ① 06. ③
 07. ④ 08. ③ 09. ⑤ 10. ⑤ 11. ③ 12. ④
 13. ③ 14. ④ 15. ⑤ 16. ③ 17. ② 18. ②
 19. ③ 20. ① 21. ② 22. ④ 23. ① 24. ④
 25. ① 26. ④ 27. ④ 28. ⑤ 29. ① 30. ④
 31. ⑤ 32. ⑤ 33. 그 밖에도 청소년들은 척추염급증증이나 각종 전염병에도 취약한 상태이다. 34. 그리고
 35. ④ 36. ③

01. '고깔모자'는 [고꺄모자]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해설

- ①, ② [꺄:꺄], [꺄:꺄서]가 표준 발음이지만 [꺄:꺄], [꺄:꺄서]도 추가로 표준 발음으로 허용하고 있다.
- ③ 받침 'ㄱ(ㄱ, ㅋ, ㆁ, ㄷ, ㅌ), ㄷ(ㄷ, ㅌ, ㅍ, ㅊ, ㅌ), ㅌ(ㄷ, ㅌ, ㅍ, ㅊ, ㅌ)'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ㅍ, ㅊ'은 된소리로 발음하므로 '꺄꺄'는 [꺄꺄]으로 발음한다.
02. '꺄어'는 [꺄어]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꺄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03. '예술'은 [예:술]로만 발음된다.
04. 단어의 첫 글자인 '의'는 [의]로만 발음되므로, '의의'는 [이]로 발음될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꺄'와 '의'는 표기대로 발음함이 원칙이다.
- ② '예'와 '례'를 제외한 '꺄'는 [꺄]로도 발음할 수 있으므로 '꺄'는 [꺄]로 발음할 수 있다.
- ③ '의'가 단어에서 첫 글자가 아닌 경우는 [이]로 발음할 수 있으므로 '꺄몽주의'는 [꺄몽주이]라고 발음할 수 있다.
- ④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할 수 있으므로 [꺄몽주이에]로 발음할 수 있다.
05.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ㄴ'은 [ㄴ]로 발음하고 [ㄴ]나 [ㄴ]로는 발음하지 않으므로, '희미한'은 [히미한]으로 발음해야 한다.
06. 'ㄴ' 앞에 자음이 오므로 '하ㄴ바람'은 [하ㄴ바람]으로 발음해야 한다.
07. 꺄받침 다음에 자음이 올 경우 꺄받침 중 하나의 음운만이 발음된다.
08. 꺄받침 'ㄴ'은 자음 앞에서 [ㄴ]으로 발음하므로 '늑다'는 [늑따]로 발음한다.
09. ① [꺄꺄], ② [무꺄꺄], ③ [들:꺄꺄], ④ [여꺄꺄]이 바른 발음이다.
10. '도'와 같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츠'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11. '뿡이[뿡씨]'에서 꺄받침 'ㄷ'은 모음 'ㅣ'와 꺄합하여 뒤엣것인 'ㅌ'이 다음 음절 첫소리로 발음되되, 된소리로 발음된다.
- 오답 해설**
- ①은 [꺄꺄], ②는 [꺄꺄], ④는 [꺄꺄], ⑤는 [꺄꺄]로 발음된다.
12. 꺄받침 'ㄷ'은 어말에서 'ㄷ'로 발음하므로 '외꺄'는 [외꺄]로 발음한다.
13. '용언의 'ㄴ'은 활용을 할 때 'ㄱ' 앞에서 [ㄴ]로 발음하므로 [꺄꺄]로 발음한다.
14. 받침 'ㄱ(꺄), ㄷ, ㅌ(꺄), ㅌ(꺄)'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꺄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꺄쳐서 [꺄, ㅌ, 꺄, ㅌ]으로 발음하므로, '꺄히다'는 [꺄꺄다]로 발음해야 한다.
15. '위', '아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받침 'ㅌ'은 [ㄷ]으로 소리 나고, '예'는 조사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으므로 앞뒤 말을 이어서 'ㅌ' 그대로 발음된다.
16. ㉠은 [꺄꺄꺄], ㉡은 [꺄꺄꺄], ㉢은 [부어꺄서], ㉣은 [주언꺄]로 발음해야 한다.

17. '육개장'이 바른 표기이다.

오답 해설

- ① '김치찌개'가 바른 표기이다.
- ③ '떡볶이'가 바른 표기이다.
- ④ '설렁탕'이 바른 표기이다.
- ⑤ '갈치조림'이 바른 표기이다.

18. '깍두기', '답그다', '주꾸미'가 바른 표기이며, '주꾸미'는 [주꾸미]로 발음한다.

19. ㉓은 '의외의 일'을 의미하는 '웬일'로 써야 한다.

20. ㉠은 상혁이의 말을 전달하는 표현이므로 '한대'로 적어야 한다.

21.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가능한 한 여러 번 많이 고쳐 쓰는 것이 좋다.

22. '백락을 고려한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였는가?'는 문장 수준에서 점검할 내용이다.

23. 학교 누리집은 공적인 기능을 하므로 이모티콘이나 준말 등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4. 문단의 중심 내용이 하나인지 확인하는 것은 문단 수준에서의 고쳐쓰기에 해당한다.

25. 친구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글이다.

26. ㉡의 내용을 요약한 것은 공부가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대비라는 것이다. 나머지는 '처음'과 '중간'에 나온 내용이거나 이 글에 없는 내용이다.

오답 해설

- ① '중간' 부분에 나온 내용이다.
- ② 이 글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다.
- ③ '처음' 부분에 나온 내용이다.
- ⑤ '중간' 부분에 나온 내용이다.

27. 공부를 해야 하는 진정한 까닭을 밝히고 있으므로 ㉡ 뒤에 이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28.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으므로 '그것은 지난 번에 성적이 많이 올라 휴대 전화를 바꿀 수 있었고 더는 공부할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처럼 앞의 문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을 담도록 고쳐야 한다.

29. 생각이나 느낌 따위가 갑자기 떠오르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은 '문득'으로 적고 [문득]으로 발음해야 한다.

30. 주장하는 글은 하나의 주장을 여러 근거를 들어 명쾌하게 펼치는 것이 좋다.

31. 이 글은 대한비만학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비만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비유적 표현은 쓰이지 않았다.
- ② 문제의 원인을 살피고 있을 뿐 해결책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 ③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 않다.
- ④ 청소년 비만의 원인이 운동 부족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32. 청소년 운동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이므로 주제 문에는 그러한 글쓴이의 주장이 담겨야 한다.

33. (가)의 마지막 문장은 글의 주제와 목적에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34. 내용이 순접 관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므로 '순접'의 접속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35. ㉠ '과체중 혹은 비만'은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고칠 필요가 없다.

오답 해설

- ㉠ '비만'은 문맥상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므로 '비만 인구'로 고친다.
- ㉡ '급격'은 '급격히'로 고친다.
- ㉢ '발생율'은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발생률'로 고친다.
- ㉣ 띄어쓰기를 고려하여 '얻을 수도'로 고친다.

36. 청소년 운동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로 이를 보강할 때 필요한 자료는 'ㄱ, ㄴ, ㄷ'이다.

4 함께 만드는 의미

• 본문 p.129

확인문제 01. ④ 02. 의미 03. ⑤

- 01. 듣기와 말하기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서로 소통하여 함께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므로 어느 것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 02. 듣기와 말하기는 듣는 이와 말하는 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의미 공유의 과정이다.
- 03. 원작 이야기의 흐름, 등장인물, 배경 등의 구성 요소가 재구성된 작품에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비교해 보면서 감상하도록 한다. 재구성 작가가 원작 작가와 개인적인 친밀도가 있는지 여부는 작품 감상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1 듣고 말하며 나누기

개념 확인 **문구**

• 본문 p.130

01. 판단 02. 생각, 대화 03. ③ 04. ④

- 01. 여학생은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해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남학생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고 있다.
- 02. 좋은 판단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에 관한 생각이 서로 달랐지만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
- 03. 대화는 설득을 포함하여 친교, 해명, 사실 확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 감정 등을 드러내기도 한다.
- 04. 대화는 듣는 이와 말하는 이가 서로 소통하여 함께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므로 대화 참여자들은 서로 의미를 교섭해 가면서 의미를 새로이 구성해 나가야 한다.

• 확인 문제 •

• 본문 p.132

01. ③ 02. ④ 03. ① 04. 이제 많이 어두워졌지?
 05. ② 06. ⑤ 07. 오랜 세월을 두고 우정을 쌓고 왕래한 집안 08. ④ 09. ① 10. 친구에게 배울 점을 찾으라. 11. ① 12. ⑤ 13. ③ 14. ③ 15. 그리고, 넘어가고 16. ③ 17. ② 18. 기한이 아저씨의 전화를 받고 아버지가 나올 것인지의 여부 19. ④ 20. ⑤ 21. ③ 22. ④ 23. ① 24. ⑤ 25. ②, ④ 26. ② 27. 수준이 맞아야 된다. 28. ①, ③ 29. 의미, 내용(주제), 상황 30. ② 31. 우정, 공유 32. 저 꼭대기에서부터 아빠와 우정에 관해 대화를 하며 걸어온 길 33. ①, ② 34. ③ 35. 미래의 모든 세대, 세계 전역의 굶주리는 아이들, 이 행성 위에서 죽어 가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 36. ③ 37. ② 38. ① 39. ④ 40. ⑤ 41. ② 42. ③ 43. 전쟁에 쓰이는 모든 돈이 빈곤을 해결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인다. 44. ④ 45. ⑤ 46. ④ 47. 제발, 주십시오 48. ② 49. ⑤ 50. ① 51. 환경, 빈곤 52. ③ 53. ③ 54. ④ 55. ②

- 01. 이 글 속의 대화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대화로서 친구를 화제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아버지와 아들이 어두워지는 시간에 대관령 산길을 넘어가고 있다.

- 02.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대화이므로 별다른 규칙이 나타나 있지 않다.

- 03. ‘죽마고우’는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옛 친구’라는 뜻으로, 어릴 적부터 가까이 지내며 자란 친구를 이르는 말이다.

오답 해설

- ②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한 뜻은 마음으로 깨닫는 수 밖에 없다는 말
- ③ 반딧불과 눈빛으로 이룬 공이라는 뜻으로, 가난을 이겨내며 반딧불과 눈빛으로 글을 읽어 가며 고생 속에서 공부하여 이룬 공을 일컫는 말
- ④ 서재에 꼭 있어야 할 네 벼, 즉 종이, 붓, 벼루, 먹을 이르는 말
- ⑤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라는 뜻으로, 결점이나 흠을 고치려다 수단이 지나쳐 도리어 일을 그르침을 이르는 말

- 04. 아버지와 아들이 대관령 밤길을 넘어가면서 나누는 대화이다.

- 05. 이 대화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자상하게 답하고 있으며, 아들 또한 아버지의 말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성실한 듣기, 말하기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06. '백 년도 더 되는 아주 오랜 친구'라고 말한 까닭은 아저씨와 아빠가 아빠의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4대에 걸친 친구이기 때문이다.

07. ㉠의 바로 뒷부분에 뜻이 풀이되어 있다.

08. 의문문 중에는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물어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아빠의 질문이 바로 이 목적에 해당하는 의문문이다.

09. 아버지는 어떤 친구를 사귄 것인가에 대하여 옛날이야기 속 진정한 친구를 예로 들어 아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아들의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10. ㉡의 질문 의도는 옛말에 '친구는 위로 보고 사귀라'라는 말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아버지의 대답 '자기보다 나은 친구 ~ 찾으라는 이야기인 거야.'에서 핵심 구절은 '친구에게 배울 점을 찾으라.'는 것이다.

11. '근목자혹'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을 가까이하면 그 버릇에 물들기 쉽다는 말이다.

오답 해설

- ㉡ 마음이 맞아 서로 거스르는 일이 없는, 생사를 같이할 수 있는 친밀한 벗을 의미
- ㉢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크게 될 인물은 오랜 공적을 쌓아 늦게 이루어짐을 의미
- ㉣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뜻으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환을 당하지 아니함을 의미
- ㉤ 외손뺨은 울릴 수 없다는 뜻으로, 혼자서는 어떤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

12. 아버지가 인용한 옛날이야기는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13.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적절한 반응을 보이면서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 <보기>의 ㉢는 "성룡이 아빠도 아빠한테 참 좋은 친구예요. 그렇죠?"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 대화를 볼 때 성룡이 아빠가 택시 영업을 한다는 것과 아버지와 성룡이 아빠가 매우 친한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는 성룡이 아빠가 영업을 하는 차가 그냥 허탕 치면 안 된다면서 택시비를 내려고 했으며, 성룡이 아빠는 친구

사이에는 대가 없이도 친구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 줄 수 있다고 하며 택시비를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5. 눈이 많이 온 어느 설날에 할아버지 집에 가지 못하고 서울에 있던 아버지를 태우고 열네 시간 동안 할아버지 집을 왕래하였던 일을 가리킨다.

16. 의문문 형식이기는 하지만 모르는 사실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에 동의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려는 의도에서 한 질문이다.

17. 아버지는 친구를 위해 '몸으로 때워 주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고, 좋은 친구도 없는 거'라고 하였다. 몸으로 때운다는 것은 기한이 아저씨를 위해 자신의 일을 잠시 미루고 아저씨의 부탁을 들어준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시간을 친구를 위해 내어준 것과 같은 것이다.

18. 기한이 아저씨가 아버지를 불러냈을 때 올 것인가를 두고 내기를 한 것이다.

19. 기한이 아저씨는 아버지를 위해 언제나 몸으로 무엇인가를 해 주는 친구였지만 아버지는 기한이 아저씨를 위해 그런 적이 한번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기한이 아저씨의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 나감으로써 비로소 친구를 위해 몸으로 무엇인가를 해 주는 경험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기에서 이겼다고 말한 것이다.

20. 아버지는 무얼 크게 도와주고 힘든 일을 해 주어야만 좋은 친구가 아니라 어떤 일로든 그 사람이 정말 내 친구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될 때 마음속에 커다란 우정이 쌓인다고 말하고 있다.

21. 이 대화는 '친구'라는 주제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대화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경청하면서 자신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있다.

22. 공적인 대화에서는 간혹 청중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적인 대화에서는 청중의 존재 여부가 대화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

23. 이 대화의 주제는 '우정'이다. ㉠는 '단단하기가 황금과 같고 아름답기가 난초 향기와 같은 사귀'이라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해 나갈 만큼 우정이 깊은 사귀를 이르는 말이다. ㉡는 '간과 쓸개를 내놓고 서로에게 내보인다'라는 뜻으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친밀히 사귀를 이르는 말이다.

오답 해설

㉢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의미

④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공부한다는 의미

24. 아버지는 어떤 일로든 그 사람이 정말 내 친구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될 때 마음속에 다시 커다란 우정이 쌓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서로가 친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서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진정한 친구라는 의미이다.
25. 말하는 이와 듣는 이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지녀야 하고, 듣고 말하는 모든 과정에 걸쳐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다.
26. 이 대화에서 아버지는 질문을 통해 아들의 말의 구체적인 의미를 확인하는 성실한 듣기·말하기 태도를 보이고 있다.
27. ‘수준’의 의미를 묻는 아버지의 질문에서 알 수 있다.
28. 아버지의 말을 통해 상우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우정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게 된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우정은 친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통해 다시 커다랗게 쌓인다는 것, 친구를 가려 사귀되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정이란 친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29.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함께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대화라고 하는데, 듣는 이, 말하는 이, 대화의 내용,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등이 대화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30. 대화에서 듣는 태도는 말하는 것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의 말을 온전하게 들으면서 적절하게 맞장구를 치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가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31. 아버지와 상우는 ‘우정’이라는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며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게 되었다.
32. 꼭대기에서 출발하여 아빠와 함께 우정에 관해 이야기하며 걸어온 길을 뜻한다.
33. 연설이 다른 말하기와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말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34. 연설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자신이 에코 조직의 대표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에코 조직이 무언가 변화에 기여하려는 모임이라는 말을 통해 조직 결성의 목적을 짐작해 볼 수 있으며, 모금을 통해 필요한 경비를 마련했음을 알 수 있다.
35. 연설자는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해, 세계 전역의 굶주리는 아이들을 대신하여, 죽어 가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을 위해

연설대에 섰다고 말하고 있다.

36. 환경 오염으로 인해 햇빛 속으로 나가기가 두렵고 숨 쉬기가 두렵다고 말한 것은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밝혀서 말한 것이다. 또한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오존층의 구멍, 공기 속의 화학 물질, 암에 걸린 물고기’ 등으로 나열하여 말하고 있다.
37. 연설자는 당면한 환경 문제를 화제로 청중으로 참여한 정부의 대표, 기업가, 기자나 정치가인 어른들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하고 있다.
38.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어른들이 나서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39. 자신이 어린아이일 뿐이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연설을 듣는 어른들의 감정에 호소하여 생각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40. 연설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의 목표라는 것은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것이다. 어른들의 태도를 비판하는 부분에서 어른들이 할 수 없는 방법들이 나열되어 있다.
41. 이 연설은 환경 문제와 전쟁, 그리고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 방안을 촉구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진 공적인 말하기이다. 따라서, 공적인 문제에 관한 연설자의 개인적인 의견과 주장이 들어 있다.
42. [A]에서는 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잘 드러나 있다.
43. 바로 앞 부분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하면 된다.
44. 아이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서로 싸우지 말고 자원을 절약하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어른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45. 환경 문제와 빈곤 문제로 나눌 수 있는데, 굶어 죽어 가는 어린이들의 문제는 빈곤 문제의 상황에 속한다.
46. 아빠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청중들에게 자신의 바람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다.
47. ‘행동을 촉구’하려는 연설의 목적이 제일 마지막 문장에 잘 드러나 있다.
48. ㉠은 말한 대로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데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한자 성어는 ㉡이다.

오답 해설

- ① 주인은 손님처럼 손님은 주인처럼 행동을 바꾸어 한다는 것으로 입장이 뒤바뀐 것을 의미
- ③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봄을 의미하는 말

- ④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것을 비유하는 말
- ⑤ 눈을 비비고 다시 보며 상대를 대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학식이나 업적이 크게 진보한 것을 의미

49. 이 연설에서 연설자의 가정 형편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정보는 나타나 있지 않다.
50. 이 연설은 공적인 상황에서 세계 여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51. 이 연설에서 말하는 이는 환경과 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52. 연설은 주로 공적인 성격이 강하고 듣는 이와 말하는 이가 분명하게 나뉘어지는 반면, 대화는 사적인 성격이 강하고 듣는 이와 말하는 이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둘 다 말하는 이의 생각과 입장을 나타낸다는 점은 공통적인 요소이다.
53.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하는 이는 듣는 이의 지식과 수준, 감정과 태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듣는 이는 말하는 이의 의도,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파악하며 들어야 한다.
54. 연설을 들은 대상을 어른과 아이로 나누어 반응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연설자가 어른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답지를 선택해야 한다.
55. 설득적 말하기는 듣는 이의 태도나 행동 등을 변화시키기 위한 말하기로 이를 위해서는 말하는 이의 주장이 타당성 있게 전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충분하고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창의·융합 활동

· 본문 p.146

01. ④ 02. ㉠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 03. ④ 04. ② 05. ⑤ 06. 여러분들의, 겁니다 07. ④ 08. ①

01. 어른들은 ‘나’가 그린 그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어른들에 ‘나’는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02. ‘나’는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것을 표현하려고 한 것이고, 어른들은 모자 그림으로 이해하고 있다.
03. 어른들에게 그림을 보여 주면서 자신의 그림이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나’의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24 | 4. 함께 만드는 의미

04. ‘나’는 자신의 그림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라는 직업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오답 해설

- ④ ‘부연’은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히 설명을 덧붙이는 것을 말한다.
- ⑤ ‘주지’는 주장이 되는 요지나 근본이 되는 중요한 뜻을 말한다.

05. 이 연설은 청소년의 특성을 열대어에 빗대어 설명하고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⑥ 여기에 소개된 열대어의 특성은 연설자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것이다.

06. 마지막 부분에 청중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잘 드러나 있다.
07. 청소년기의 특성이 열대어와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청소년에 대한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촉구하고 있다.
08. 이 연설은 열대어의 특징과 청소년의 특징이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청소년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사랑하는 열대어’는 청소년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소단원 핵심문제

· 본문 p.151

01. ①, ③ 02. ⑤ 03. ② 04. ① 05. 서로 믿고,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친구를 말한다.
06. ② 07. ① 08. ③, ④ 09. 늦은 밤에 아빠가 친구(기한이 아저씨)가 있는 식당으로 간 일 10. ② 11. 어른들께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12. ⑤ 13. ② 14. ④ 15. ⑤ 16. 전쟁에 쓰이는 모든 돈을 빈곤을 해결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어른들이 노력해 주십시오. 17. ③ 18. ③ 19. ④

01. 대화를 할 때에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지녀야 하는데, 이를 위해 듣고 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한다.
02. 이 글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우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03. ㉠ (나)에서 옛말의 의미를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친구를 사귀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 말해 주고 있다.
 ㉡ “그럼, 어떻게 해요?”라고 묻는 아들의 질문에 대해 아버지는 자상한 태도로 자신의 생각을 들려주고 있다.

① 이 대화에서 아버지는 진정한 친구에 대해 자신의 경험과 옛날이야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04. (가)는 대화의 도입부로 대화의 공간적·시간적 배경이 드러나 있고, 화제가 제시되어 있다.

05. 아버지가 생각하는 진정한 친구의 의미로서, 앞 부분에 ㉠이 지시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 있다.

06. ②는 이해 관계를 이모저모 따져 헤아리는 태도로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고사성어는 ②이다

오답 해설

- ① 잘못된 사람이 잘 한 사람을 도리어 나무람을 의미하는 말
- ③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이라도 자기의 지덕을 닦는 데 도움이 됨을 비유하는 말
- ④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함을 의미하는 말
- ⑤ 말과 행동이 같음을 의미하는 말

07. 이 대화는 '우정'을 화제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버지와 아들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게 된다.

08. 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들에게 진정한 친구와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말을 통해 둘 사이에서 공유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09. 아빠의 친구(기한이 아저씨)가 늦은 밤에 아빠에게 전화를 하여 식당으로 불러냈을 때 아빠가 아무 조건없이 친구에게 갔던 일이다. 여기서 시간은 전화가 온 시간 또는 아빠가 약속 장소에 나간 시간을 뜻하며 장소는 아빠의 친구가 있던 곳을 가리킨다.

10. 연설은 공식적인 말하기로서, 연설자가 청중들 앞에서 연설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말하기이다.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 말해야 한다.

오답 해설

㉠ 공적인 성격의 말하기이므로 격식을 갖춘 정중한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이 연설에서 말하는 이는 어른들이 현재 지구가 당면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12. (마)에는 이 연설의 청중들이 정부의 대표, 기업가, 정치가로 참석했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

13. '죽어 가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 '암에 걸린 물고기들', '사라져 버린 동물', '사막이 된 곳' 등은 환경오염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들의 원인은 오존층 파괴와 같은 환경오염이라고 할 수 있다.

14. 연설자는 어린아이로 연설을 듣는 어른들에게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5. 이 연설에서 말하는 이는 청중인 어른들을 대상으로 지구의 환경을 지키고 전쟁과 빈곤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말하는 이의 자기 반성적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16. 말하는 이가 제기한 문제와 해결책이 (라)에 언급되어 있다. 이 연설에서 문제 해결의 주체는 청중들로 참석한 어른들이다.

17. (다)에는 말하는 이가 이틀 전 브라질에서 몇몇 아이들과 보낸 경험이 잘 드러나 있다.

18.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어른들의 태도를 비판하기에 적절한 고사성어는 서로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③이다.

오답 해설

- 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 ② 정도를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과 같음을 이르는 말
- ④ 정도를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함을 이르는 말
- ⑤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이르는 말

19. 말하는 이는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을 안심시키고 지구의 미래를 위해 환경과 빈곤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며 비판적 태도로 말하고 있다.

2 흑설 공주

개념 확인 목록

• 본문 p.156

01. 재구성 02. 뚱뚱한 03. ④ 04. ②

01. 재구성이란 원작의 내용에 글쓴이의 새로운 상상과 가치를 더하여 새롭게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작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02.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달리 보테로의 그림은 원작과는 달리 모나리자를 뚱뚱하게 표현하여 아름다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벗어나고 있다.
03. 재구성의 방법으로는 내용, 형식, 맥락, 매체들을 원작과 달리 바꾸는 것들이 있다. 소설이나 웹툰이 원작인 작품을 영화화하는 경우가 작품의 갈래를 바꾼 것이다.
04. 재구성은 원작의 내용에 글쓴이의 새로운 상상과 가치를 더하여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므로 원작에 충실한가의 여부를 전제로 감상할 필요는 없다. 독자들에게 미치는 반응 또한 감상의 핵심은 아니다.

• 확인 문제 •

• 본문 p.158

01. ③ 02. ④ 03. ③ 04. • 공통점: 공주가 태어나자마자 왕비가 죽었다. • 차이점: 온몸이 새까만 공주가 태어났다. 05. ③ 06. 흑설 공주는 어느덧 책을 좋아하게 되었고, 들쥐나 새 같은 작은 짐승들과도 친해짐. 07. ⑤ 08. ① 09. ⑤ 10. 하지만, 공주님이십니다 11. ④ 12. 흑설 공주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13. ③ 14. 다음 페이지에는 그 독을 풀 수 있는 해독제도 발랐다. 15. ① 16. ⑤ 17. ④ 18. 또다시 다음 장을 넘기기 위해 손가락에 침을 문혔다. 19. ① 20. ② 21. ⑤ 22. ①, ② 23. 유리 관 뚜껑을 열고 공주의 입에 살짝 입맞춤을 해 보았다. 24. ④ 25. ③ 26. 나무꾼의 눈물에 책장에 묻어 있던 해독제가 공주의 입안으로 녹아 들어감. 27. ⑤ 28. 검은 태양 29. ② 30. ④ 31. ⑤ 32. 자신의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이다. 33. ③ 34.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각각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35. ⑤ 36. ①

01. 백설 공주의 딸인 흑설 공주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으며(㉠), 내용과 주제의 구성에서 작가의 새로운 상상력이 반영되었다.(㉡)

오답 해설

원작인 「백설 공주」와 마찬가지로 동화이므로 원작과 매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며(㉠), 원작인 「백설 공주」도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02.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원작의 주제를 창의적으로 바꿀 수 있으므로 원작의 주제 의식이 재구성된 작품에 그대로 반영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왕비가 바라보는 창밖에만 검은 눈이 내린다는 것은 이 글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요소이며, 검은 눈은 '흑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04. 공통점은 공주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되어 왕비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원작에서는 흰눈처럼 흰 피부를 가진 공주가 태어났는데 이 글에서는 검은 피부를 가진 공주가 태어났다는 점이다.
05. 공주가 온몸이 까만 피부를 갖고 태어난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아버지인 왕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게 되었다.
06. 흑설 공주가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무도 없는 궁궐의 작은 도서관이나 정원 귀퉁이의 덩불숲 같은 곳에서 지내다 보니 어느덧 책을 좋아하고, 들쥐나 새 같은 작은 짐승과도 친해지게 된 것이다.
07. 검은 피부를 갖고 태어난 것만으로 세상 사람들이 흑설 공주를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것은 아름다움의 기준을 하얀 피부라는 오직 한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08. 어머니가 떠준 하얀 망토만을 언제나 품속에 넣고 다닌 것은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공주의 그리움을 드러내는 행동이다.
09. [중략된 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새 왕비가 진실의 거울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흑설 공주라는 사실을 듣고 난 후 공주를 성 밖으로 내보내고 사냥꾼을 시켜 공주를 죽이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거짓말을 못하는 거울의 말을 통해 흑설 공주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1. 이 부분에는 원작과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새 왕비의 계락을 왕에게 알리려는 공주의 행동은 원작과 이 글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12. 새 왕비는 공주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계락이 탄로될지 모른다는 사실과 자신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흑설 공주를 죽이려고 결심하고 있다.
13. 원작에서는 왕비가 사과에 독을 발라 공주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 글에서는 공주가 좋아하는 책에 독을 발라 공주를 죽이려고 한다. 독을 이용하여 죽이려는 계락은 공통적이지만 원

작과 달리 이 글에서는 독을 책에 바른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14. 왕비는 책에 독을 바른 다음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독을 풀 수 있는 해독제도 바르는데, 이는 독으로 죽음을 이룬 공주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장치에 해당한다. 왕비의 행동을 찾아 써야 하므로 해독제를 바른 행동이 들어 있는 문장을 찾아 쓰도록 한다.
15. 평소 책 읽기를 좋아한 공주가 난쟁이네 집에 있는 몇 안 되는 책을 다 읽어 버려 다른 책을 몹시 읽고 싶어 하였던 참에 여자가 아닌 남자가 책을 지고 권하였기 때문에 새 왕비의 계략에 속아넘어가게 된 것이다.
16. 독이 든 사과로 공주를 죽이려는 원작과 달리 책에 독을 발라 공주를 죽이려 한 점이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변형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17. 새 왕비의 등장은 원작과 공통점이며, 원작과 마찬가지로 이 글에서도 왕비는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8. 책장에 묻은 독이 손가락에 묻고 그 독이 공주의 입안으로 들어가서 공주가 죽게 된 것이다.
19. 공주의 손끝에 묻어 있던 독이 공주가 책장을 넘기는 과정에서 입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공주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이다.
20. 공주가 죽자 손거울을 공주의 코 끝에 대고 공주의 죽음을 확인하는 행동에서 왕비의 치밀한 성격을 엿볼 수 있다.
21. 원작에는 공주가 죽은 뒤 왕자가 나타나 공주를 살아가게 하는데 이 글에서는 왕자가 아니라 나무꾼이 등장하게 된다.
22. 공주가 책에 묻은 독을 삼키고 쓰러진 것을 발견한 난쟁이들은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공주의 허리띠도 풀어보고, 머리에 빗이 꽂혀 있는지, 입안에 독 사과가 남아 있는지 다 뒤져 본 것이다.
23. 옛날이야기를 많이 읽은 나무꾼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리관 뚜껑을 열고 공주의 입에 살짝 입맞춤을 해 보았지만 공주는 살아나지 않았다.
24.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는 것은 나무꾼의 내성적이고 지적인 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는 나무꾼의 성격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공주를 오래전부터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㉔), 나무꾼의 눈에 눈물이 맺힌 것(㉕) 등은 나무꾼의 감정에 해당한다.

25. 원작에서는 왕자가 공주를 보고 첫눈에 반해 공주에게 입맞춤을 하게 됨으로써 공주가 살아가게 되지만, 이 글에서는

이전부터 공주를 사모해 왔던 나무꾼에 의해 공주가 살아가게 된다. 두 작품 모두 공주를 발견한 남자에 의해 공주가 다시 살아난다는 점은 공통적인 내용이다.

26. 나무꾼의 눈물에 책장에 묻어 있던 해독제가 공주의 입안으로 녹아 들어가서 공주가 살아가게 된 것이다.
27. 나무꾼의 눈물에 흘러내린 해독제로 살아가게 된 공주가 나무꾼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는 이 글의 주제인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라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
28. '검은 태양'은 검은 색 피부를 가진 공주의 아름다움을 비유한 표현이다.
29. 이 글은 검은 피부의 공주가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내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된다는 점에서 원작과 큰 차이가 있다. 공주를 죽이려고 했던 새 왕비가 결국 벌을 받고 공주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원작과 이 글의 공통점에 해당한다.
30. 이 글의 주제는 아름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내어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31. 공주의 모습이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여전히 새까만 모습이었지만 사람들은 스스로를 아름답다고 느끼고 행복해 하는 공주의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 것이다.
32. 공주가 다락방 거울에게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사람이 누구냐고 물은 까닭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33. 이 글은 주인공의 성격, 새로운 인물의 설정 등을 통해 원작과 다른 주제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내용상의 변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작품이라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㉔ 원작도 이 글도 주인공이 행복한 삶을 사는 방식으로 결말을 맺고 있으므로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것은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34. 흑설 공주와 거울의 대화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장미는 장미대로 ~ 제비꽃대로 아름답듯이'는 비유적 표현이므로 이를 빼고 앞 부분의 말을 정리하여 쓰도록 한다.
35. 이 글은 누구나 각각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36. '나무꾼의 눈에는 오직 흑설 공주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드러내기 적합한 속담은 ①이다. '제 눈의 안경'은 '보잘것없는 물건이라도 제 마음에 들면 좋게 보인다는 말'이다.

오답 해설

- ② 결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겉모양은 보잘것없으나 내용은 훨씬 훌륭함을 이르는 말
- ④ 보잘것없는 사람도 제각이 있다는 말
- 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있을 것이라는 말

학습 활동 다지기

· 본문 p.167

이해 다지기 문제 1. ㉠ - ㉡ - ㉢ - ㉣ - ㉤ - ㉥ - ㉦ - ㉧ - ㉨ - ㉩ - ㉪

목표 다지기 문제 1. ① 2. ③ 3. ② 4. ⑤ 5. ⑤ 6. ①

- 목표 1.** 원작과 마찬가지로 이 소설 속 주인공인 흑설 공주도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이며 신분 역시 공주라는 점에서는 달라진 점이 없으므로 이를 살펴보는 것은 적절한 감상의 태도가 아니다.
2. 원작에서는 흰 눈과 같은 피부를 가진 공주가 태어나지만 이 글에서는 검은 색 피부를 가진 공주가 태어나게 된다. 이것은 아름다움을 한 가지 기준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검은 색 피부를 가진 공주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이라 할 수 있다.
3. 글쓴이의 글에서 '아름다움이란 것은 우리 모두에게 깃들어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글쓴이는 각자 가진 아름다움을 찾아내서 그것에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해설

- ④는 이 글의 가치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 ⑤에서 아름답기 위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이 글의 글쓴이가 언급한 자신감과 거리가 먼 내용이다.
- 4. 이 글의 글쓴이는 외모만 중요한 것이 아니며 사람에게 는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 아름다움을 스스로 발견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은 이 글의 주제와 상반되는 생각이다.
- ②, ③, ④ 역시 글쓴이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다.
- 5. '아름다움의 기준은 다양하다'는 이 글의 주제를 바탕으로

로 할 때 타인을 따라하는 것은 주제를 드러내는 적절한 내용이라 볼 수 없다.

6. 이 글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으므로 외모만으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잘것없으나 내용은 겉모양보다 훨씬 좋다는 ①이 주제를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표현이다.

오답 해설

- ② 무슨 일이나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
- ③ 내용이 좋으면 겉모양도 반반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④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⑤ 어떤 사물은 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소단원 핵심문제

· 본문 p.173

01. ④ 02. ② 03. ③ 04. ④ 05. ⑤ 06. ①
 07. ③ 08. 왕비가 직접 나서 흑설 공주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된다. 09. ② 10. ① 11. 왕비가 공주가 읽던 책에 독과 함께 해독제를 바름. 12. ⑤ 13. ② 14. ②
 15. ① 16. ①, ④ 17. 나무꾼의 눈물에 책장에 묻어 있던 해독제가 공주의 입안으로 녹아 들어감. 18. ④ 19. ③
 20. ④ 21. ④ 22.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각각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23. ⑤ 24. ②

01. 이 글은 널리 알려진 「백설 공주」를 재구성한 소설이다.

오답 해설

- ① 이 글은 비평문이 아니라 소설이다.
- ② 원작과 마찬가지로 이 글 또한 소설이므로 갈래가 변형된 것은 아니다.
- ③ 이 글에는 역사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배경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이 글은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창조된 허구이다.

02. (나)에서 '검은 눈'이라는 자연 현상은 비현실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형성하는 소재이다.

오답 해설

- ① '흰 눈, 겨울날'은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③ 아기를 낳고 싶다는 왕비의 소망이 왕비의 말 속에 잘 나타나 있다.
- ④ '몇 달 후'는 시간적 흐름을 드러낸다.
- ⑤ '흑설은 검은 눈이라는 뜻이었다.'라는 문장에 공주의 이름에 담긴 뜻이 나타나 있다.

03. '검은 눈'은 흑설 공주의 이름과도 관련이 있으면서 이 글의 분위기를 비현실적이고 신비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소재이다.

04. 아버지가 자식인 공주가 새까만 피부를 갖고 태어났다고 하여 실망하는 모습을 비판하려면 자식에 대한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담고 있는 속담이어야 한다. ④의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는 '어버이 눈에는 제 자식이 다 잘나고 귀여워 보인다'는 말로 아버지의 태도를 비판하기에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촌수나 친분은 멀어질수록 더욱 사이가 벌어진다는 말
- ② 자기 혹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정이 더 쏠리거나 유리하게 일을 처리함은 인지상정이라는 말
- ③ 자식을 많이 둔 어버이에게는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⑤ 어떤 사물에 몹시 놀란 사람은 비슷한 사물만 보아도 겁을 났음을 이르는 말

05. 이 글은 원작 「백설 공주」를 작가의 개성적인 시각으로 재구성한 소설이다. 재구성 과정에서 등장인물의 성격과 외모를 변형시킨 것은 원작의 주제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작의 주제와 다른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06. (가)에서 어머니가 떠 준 하얀 망토를 항상 품속에 간직하고 다니는 공주의 모습을 통해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공주의 그리움을 느낄 수 있다.

07. (다)의 '새 왕비가 흑설 공주를 죽였으니~'로 볼 때 (나)와 (다) 사이에는 새 왕비가 사냥꾼을 시켜 공주를 죽이려 한 사건이 들어가야 한다.

08. 거울에게 자신보다 흑설 공주가 더 아름답다는 말을 들은 왕비는 직접 나서서 흑설 공주를 죽이기로 결심하게 된다.

09. 왕비는 독 사과보다는 공주가 좋아하는 책으로 공주를 유인하기가 쉽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독 사과를 들고 가지 않았던 것이다.

10. 원작 「백설 공주」에서는 공주가 독이 든 사과를 먹고 깨어나지 않지만, 이 글에서는 책장에 묻은 독으로 공주가 죽게 된다.

11. 사건의 시간적 전개를 볼 때 빈칸에는 공주가 자리를 비운 사이 왕비가 공주가 읽던 책에 독과 해독제를 바른 일이 들어가야 한다.

12. 흑설 공주가 물을 가지러 간 사이에 왕비는 공주가 읽던 책장에 독을 바른다.

13. ㉠은 앞뒤 문장이 인과 관계로 이어져 있고, ㉡은 역접 관계로 이어져 있다.

14. 독과 함께 해독제도 발라야 한다는 마녀 세계의 법칙에 따라 왕비가 독을 바른 다음 장에 해독제를 발라두는 것은 나중에 공주가 깨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복선에 해당한다.

15. 공주를 발견한 남자에 의해 공주가 깨어난다는 점은 이 글과 원작의 공통점이고, 남자의 신분이 다른 것은 차이점 해당한다.

오답 해설

- ② 공주가 난쟁이들의 보살핌을 받은 것은 공통점이지만, 남자가 공주의 아름다움에 첫눈에 반한 것은 원작의 내용에 해당한다.
- ③ 공주를 깨운 남자의 신분이 평범한 것은 원작과 다른 점이다.
- ④, ⑤ 남자가 공주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높은 신분의 남자에 의해 공주가 깨어나는 것은 모두 원작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16. (가)에서 난쟁이들이 쓰러진 공주를 보며 예전의 일을 생각해 내는 장면과 (라)에서 나무꾼이 공주를 생각하는 장면은 과거 회상에 해당한다.

17. 공주가 눈을 뜨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책장에 묻어 있던 해독제가 공주의 입 안으로 녹아 들어갔기 때문이다.

18. 난쟁이들이 공주의 관을 숲속으로 옮겼기 때문에 나무꾼이 공주를 발견하여 공주의 잠을 깨우게 된다.

오답 해설

- ① 관을 숲속으로 옮긴 것과 공주의 죽음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으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지도 않는다.
- ②, ③ 관을 숲속으로 옮긴 이후에는 이전의 갈등들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 ⑤ 나무꾼은 오래 전부터 공주를 사모하고 있었다.

19. ㉠에는 공주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의 감정이 담겨 있다. '한탄'이란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 한숨을 쉬며 탄식함'이라는 뜻이다.

20. 이 글의 글쓴이는 원작 「백설 공주」의 재구성을 통하여 아름다움의 기준이 외모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사람에게는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 아름다움을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21. 이 글은 원작과 달리 검은 피부를 갖고 태어난 흑설 공주의 외모적 특징과 잠에서 깨어난 공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거울을 통해 주제를 전달하고 있

는 이유를 묻는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

- 22. 한 가지 기준만으로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공주는 사람마다 각자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말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23. 거울이 알려 준 사람을 불러다 공주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 24. ㉠의 '눈'은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오답 해설

①은 시력, ③·⑤는 사람들의 눈길, ④는 무엇을 보는 표정이나 태도를 의미한다.

대단원 확인 문제

• 본문 p.180

- 01. ①, ⑤ 02. ④ 03. 서로 믿고,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친구를 말한다. 04. ① 05. ②
- 06. ②, ④ 07. ② 08. 좋은 친구란 친구를 위해 힘들지만 몸으로 때워 주는 사람이다. 09. 물질적 대가를 바라며 10. ⑤ 11. ②, ④ 12. ④ 13. ③ 14. 어른들께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이다. 15. ④ 16. ④ 17. 전쟁에 쓰이는 모든 돈을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자. 18. ①
- 19. ③ 20. ③ 21. ② 22. 굴뚝에서 빼내 온 아이처럼 온몸이 새까맣고, 검은 눈처럼 아름다운 아기였다. 23. ③
- 24. ① 25. 왕비는 손거울을 꺼내 공주의 코 끝에 대 보았다. 26. ① 27. ③ 28. ③ 29. 아름다움은 누구에게나 깃들어 있다. 30. ① 31. ③ 32. ④ 33. ③
- 34. ③ 35. ⑤ 36. ① 37. ④

- 01. 대화는 의미를 공유하는 활동으로 대화를 통해 생각과 말이 조정된다.

오답 해설

- ② 대화는 의미를 공유하는 활동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에 의해 자신의 생각이 바뀌어 설득되기도 한다.
- ③ 대화의 과정에서 대화 참여자들의 말과 생각, 감정 등은 일정한 변화를 겪기도 한다.
- ④ 대화의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대화의 주제는 다양하다.

- 02. (나)에서 아버지는 친구를 사귄 때 수준이 맞아야 하나는 아들의 질문에서 '수준'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성실한 듣기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03. '친구란 내가 외롭거나 어려울 때~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될

수 있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란다.'라는 부분과 그 뒷부분에 나오는 '서로 믿고, 서로 돕고,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라는 부분에 아버지가 말하는 좋은 친구의 의미가 나타나 있다.

- 04.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 '백 년'은 '대대로 이어온 시간'의 개념인데 아들은 단순한 나이의 개념으로 ㉠을 이해하고 있다. 아버지가 말한 ㉠을 아들은 ㉡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 05.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먹을 만지면 손이 검게 물들듯, 나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의 나쁜 모습을 닮게 된다'는 뜻이다.

오답 해설

- ① 떨어지지 않고 서로 꼭 붙어 다니는 가까운 사이를 의미
- ③ 그때그때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지조 없이 옮기는 모습을 의미
- ④ 서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함께한다면, 무엇을 하든 신이 나고 힘도 덜 든다는 의미
- ⑤ 오래 사귄 친구일수록 함께한 추억도 많고, 정도 들어서 좋다는 의미

- 06. 이 대화는 아버지와 아들이 '친구'라는 주제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 07. 이 대화에는 특별히 아들의 고민이 드러나 있지 않다.

- 08. 기한이 아저씨의 전화를 받고 아빠가 나갔던 일을 통해 아빠는 친구를 위해 몸으로 때워 주는 일이 힘들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09. 친구 사이에 요금을 받지 않은 것은 물질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친구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준 것이다.

- 10. '어떤 일로든 그 사람이 정말 내 친구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될 때 다시 커다란 우정이 쌓인다'는 말에서 좋은 친구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 11. 이 글은 지구의 환경을 지키고 전쟁과 빈곤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바람을 담은 연설문으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 듣는 이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마)에 이 연설의 듣는 이들이 정부의 대표, 기업가, 기자나 정치가라는 것이 나타나 있다.
- ③ (라)를 보면 말하는 이가 뚜렷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격식을 갖춘 정중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다.

12. <보기>의 대화는 아버지와 아들이 번갈아 말하며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상황이 전환되지만, 이 연설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13. (다)의 첫 문장에는 말하는 이의 바람이, 두 번째 문장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담겨 있다. 또한 마지막 문장에서 말하는 이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어른들의 대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14. (가)에는 연설자의 신분과 연설을 하게 된 목적이 나타나 있는데,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말하는 이가 이 회의에 참석하게 된 목적이 직접 드러나 있다.
15. 연설자는 공식적인 자리에 어울리는 정중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다. (다)와 (라)에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가 솔직하게 드러나 있으며 (마)에는 자신의 바람이 청중들의 행동에 반영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16. (라)의 첫 번째 문장에서 전쟁과 빈곤, 환경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마지막 부분에서 어른들의 모순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17. ㉠과 ㉡는 전쟁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이다. (라)에서 연설자는 전쟁에 쓰이는 돈이 빈곤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인다면 지구가 멋진 곳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8. 자신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은 정작 어른들이 나서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 줌으로써 어른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역할을 한다.
19.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리의 아이가 기꺼이 나누겠다고 한 말을 들으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인색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20. 이 글은 널리 알려진 동화「백설 공주」를 재구성한 작품이다. 원작의 주인공 백설 공주가 이 글에서는 흑설 공주라는 인물로 재구성되어 이야기가 전개된다.

오답 해설

- ④ 이 소설은 원작과 마찬가지로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21. 이 글에서 검은 눈이 내리는 것은 온몸이 새까만 흑설 공주의 탄생과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신비한 사건에 해당한다.
22. 검은 피부의 공주를 '굴뚝에서 빼내 온 아이'와 '검은 눈'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23. ㉠의 '길'은 '어떤 일에 익숙하게 된 습씨'라는 뜻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이다.

오답 해설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삶이나 사회적·역사적 발전 따위가 전개되는 과정
- ② 어떠한 일을 하는 도중이나 기회
- ④ 어떤 행동이 끝나자마자 즉시
- ⑤ 길이의 단위
24. 이 글은 널리 알려진 동화「백설 공주」를 재구성한 작품이다. 새 왕비가 공주를 미워하고 질투하는 모습은 원작과 동일한 내용이다.
25. 왕비는 손가락에 침을 문히던 공주가 쓰러지자 공주가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주의 코 끝에 거울을 대보는 행동을 한다. 공주의 숨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거울에 김이 서릴 것이기 때문인데, 이는 왕비의 치밀한 성격을 보여 주는 행동이다.
26.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난쟁이들은 예전에 공주가 독 사과를 먹고 쓰러진 것을 살려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전의 일'이란 공주가 독 사과를 먹고 쓰러진 일을 가리킨다.
27. '넘어'는 '높이나 경계로 가로막은 사물의 저쪽, 또는 그 공간'이라는 뜻으로 사물의 저쪽이나 공간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에 비해 '넘어'는 "산을 넘어 간다."와 같이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다.
28. 이 글은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아름다움의 기준은 하나가 될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이 세운 아름다움의 기준은 허약하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원작과 마찬가지로 이 글에서도 새 왕비의 질투로 공주가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된다.
- ②, ⑤ (라)에서 공주가 한 말 속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다.
- ④ 이 글에서는 원작과 달리 나무꾼이 등장하여 공주를 살리고 있다.
29. (다)에서 공주가 가장 못생긴 사람을 불러다가 해 주는 말 속에 이 글의 주제가 들어 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세운 아름다움의 기준 ~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의 문장에서 15자를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말을 찾아 서술하도록 한다.
30. (나)의 '무엇보다도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 여전히 새까만 공주가 어째서 이토록 아름답게 여겨지는지 사람들은 당황하고 말았다.'에서 공주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공주를 아름답게 바라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1. (다)에 나타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세운 ~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 주었던 것이다.'에서 공주가 했을 말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공주는 다른 사람이 세운 아름다움의 기준은 허약하다는 것과 아름다움이란 누구에게나 깃들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내어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우라는 말을 했을 것이다.

32. ㉔는 공주의 모습을, ㉕는 왕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33. (가)는 대화로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며 의미를 공유해 가지만 (나)는 연설로 연설자가 자신의 생각을 설득적 어조로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나)의 말하는 이는 실제 인물인 반면, (가), (다)는 소설로 말하는 이가 허구적 인물이다.
- ② (다)만 백설 공주를 원작으로 그 내용을 재창작한 소설이다.
- ④ (가)는 대화, (나)는 연설로 듣기와 말하기가 의미를 공유과정임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가)~(다) 모두 교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34. 아버지는 아들의 물음에 대해 옛날이야기를 인용하여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옛날이야기는 아버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은 아니다.

35. 이 글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 환경 개발 회의에서 당시 12세 소녀였던 세번 스키스가 발표한 연설문이다. 이 연설에서 말하는 이는 어른들에게 세계의 환경과 빈곤 문

제를 인식하게 하고, 이에 관한 행동을 촉구하려는 목적으로 연설을 하고 있다.

오답 해설

- ㉔ 말하는 이는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내세워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린아이라는 입장을 강조하여 말하였을 뿐이다.
- ㉕ 말하는 이는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말하고 있다.

36. 이 소설에서 말하는 주제는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한다는 것으로 ㉔은 주제와 거리가 멀다.

37. '상부상조'란 '서로서로 돕는다'라는 뜻으로 ㉔과 그 의미가 같다.

오답 해설

- ①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산의 옥돌을 가는 데에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본이 되지 않은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오를 이르는 말
- ③ 먹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⑤ 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중용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

5 이해를 돕는 매체

• 본문 p.191

확인 문제 01. ④ 02. 그래프는 글로 제시된 복잡한 내용, 특히 수치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효과가 있다.

01. 음성 언어는 일회성을 큰 특징으로 하고 있지만 음성 언어도 문자 언어와 마찬가지로 매체에 속한다.

1 명태의 귀환

개념 확인

• 본문 p.192

01. ② 02. ② 03. ① 04. 그림

01. 기사문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사문에서 매체 자료를 활용하는 목적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이다.

02. 복잡한 수치나 내용을 시각적으로 정리하여 보여 주기에 적절한 매체 자료는 도표이다.

03. 매체 자료를 제시하는 목적은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매체 자료가 독특하고 개성적인 형태를 지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04. 그림은 사진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하기에 적절하다.

확인 문제

• 본문 p.194

01. ② 02. ③ 03. ③ 04. 국산 명태가 우리 식탁에 다시 오르는 것이다. 05. ④ 06. ① 07. ② 08. 알을 밴 어미 고기나 어린 고기까지 마구 잡았기 때문이다. 09. ②, ③ 10. ④ 11. ③ 12. 명태는 차가운 물을 좋아하는 냉수성 어종이다. 13. ④ 14. ③ 15. 수정란을 얻어 인공적으로 부화하게 함. 16. ⑤ 17. ③ 18. ③ 19. ③ 20.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21. ② 22. ② 23. ① 24. 명태가 잘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도움을 준다. 25. ① 26. ② 27. 양식 명태의 대량 생산

01. 기사문은 정확한 내용을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기사문은 특정 대상을 독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다.

③ 기사문은 정보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므로 부정확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 기사문은 정보를 치우치지 않은 관점에서 전달해야 한다.

⑤ 기사문의 문장은 간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독자들이 기사문이 전하는 바를 빨리, 정확히 전달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02. (가)는 신문 기사에서 '전문'에 해당한다. 전문은 신문 기사 전체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다.

03. 명태가 값이 싸고 맛있는 생선이라는 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민 생선이라는 것과 값싸고 맛있다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04. 글쓴이는 마지막 문장을 통해 자신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식탁에 국산 명태가 다시 오르는 것이다.

05. 우리나라에서 명태는 여러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요리에서 쓰임새가 많고 소비량도 매우 많아 국민 생선이라고 불린다.

06. 사진 매체는 글로만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어 이해를 돕는 효과가 있다.

오답 해설

② (나)의 사진은 글의 내용과는 관련이 있지만 글쓴이의 생각을 돌려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할 뿐 그 신뢰성을 높여 주는 것과는 큰 관련이 없다.

④ 글의 내용과 관련이 있지만 복잡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설명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해 주는 기능을 하는 시각 자료는 도표나 그래프이다.

07. (나)의 내용을 보면 명태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가 요리에서 쓰임새가 많아 우리 식단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생선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08. (라)에서 글쓴이는 명태의 개체 수가 줄어든 이유로 알을 밴 어미 고기나 어린 고기까지 술안주로 인기가 좋다고 마구 잡았기 때문에 명태의 씨가 말라 버렸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09. 국산 명태가 사라진 것은 어린 명태까지 마구잡이로 잡아들였고, 수온이 상승하면서 명태가 살기에 알맞지 않은 바다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10. 도표는 본문을 통해 설명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오답 해설

① 수온의 변화는 우리나라 주요 어종이 변한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 이 도표를 통해서 직접 알 수는 없다.

- ② 생김새를 알기 위해서는 사진 자료가 필요하다.
- ③ 명태의 어획량만을 나타내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 다양한 어종의 어획량의 변화를 나타낸다. 또한 명태의 어획량 변화가 해마다 제시되어 있지도 않다.
- ⑤ 어종의 변화 자체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지는 않는다.

11. 이 그림 자료에서 2000년도 지도를 살펴보면 명태가 잡히는 장소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주요 어종의 변화를 우리나라 지도와 함께 그림으로 보여 주고 있는 자료이다.
12. 우리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 명태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것과 관계 있다.
13. (바)~(자)에서는 국산 명태 양식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14. 국산 명태 어미를 찾는 것은 명태의 완전 양식을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이었다.
15. 국산 명태 어미로부터 얻은 수정란을 인공적으로 부화시켜서 다시 수정란을 얻으면 완전 양식에 성공한 것이다.
16. 양식을 통해 키워 낼 수 있는 다른 생선 사진은 이 글의 내용과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굳이 삽입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이다.

오답 해설

- ① (사)에 명태 수정란을 통한 설명이 있으므로 적절한 사진 자료이다.
- ② (아)에서 자연산 명태를 구하기가 어렵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사진 자료이다.
- ③ (아)에 제시되어 있다. '자망'은 독자가 흔히 접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진으로 제시해 주면 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명태의 인공 부화를 보여 주기에 적절한 사진 자료이다.

17. 인공 1세대의 양식 성공 비율은 밝혀져 있지 않다. 인공 1세대의 일부를 동해안에 방류했음만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2016년 9월이라고 제시되었다.
- ② 2018년 12월이라고 제시되었다.
- ④ 2015년 1월이라고 제시되었다.
- ⑤ 2017년 1월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18. '명태 완전 양식 과정'은 시간 순서에 따라 국산 명태의 완전 양식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로 정리해 주고 있다.

34 | 5. 이해를 돕는 매체

19. '명태 난 발생 및 성장 발달 과정'은 사진을 활용하여 난 발생 과정과 명태의 성장 과정을 정리하여 보여 주고 있다.

20. 이 글은 기사문으로 '국산 명태의 양식 성공'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21. 연구팀은 고도 불포화 지방산의 종류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고도 불포화 지방산을 포함한 고에너지 명태 전용 배합 사료를 연구, 개발하였다.

22. 이 글에 제시되어 있는 로티퍼 사진은 글의 내용과 관련은 있지만 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는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주제와 관련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긴밀히 연관되는 자료는 아니다.
- ③ 로티퍼는 새끼 명태의 먹이이므로 글의 내용과는 관련이 있다.
- ④ 출처를 알 수 없으므로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자료이다.
- ⑤ 글의 내용과 관련이 있지만 글의 내용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주는 자료는 아니다.

23. 이 글에서 소제목은 소제목으로 묶인 글의 중심 내용을 나타내 주고 있다.

24. 연구팀에서 개발한 고에너지 명태 전용 배합 사료는 고도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어 명태가 더 빨리 자라게 하며 알을 낳을 수 있게 성숙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준다.

25. 인공 명태를 바다에 방류한 이유는 인공적으로 키워 낸 명태가 건강하게 자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오답 해설

- ② (너)를 보면 인공 명태를 대량으로 번식시키는 데는 수조 양식이나 가두리 양식의 활용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 ③ 인공 명태가 자연에 잘 적응해야 국산 명태 양식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26. (거)와 (너)에는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박사의 의견이 담겨 있다. 이와 같이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는 것은 글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27. 현재는 인공 양식 기술을 개발한 수준이므로 당장 식탁에 명태가 오르는 어렵다고 하면서 대량 생산이 되면 육지와 바다에서 명태를 키워 내 식탁에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학습 활동 다지기

• 본문 p.201

이해 다지기 문제 1. ①

목표 다지기 문제 1. ② 2. ③ 3. ④ 4. ④ 5. ③ 6. ③

이해 1. 명태의 종류가 다양한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음식 재료로 사용되면서 그 이름이 다양한 것이다. 수정란을 여러 종류의 명태에서 얻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해설

- ② '명태 완전 양식, 세계 최초로 성공하다' 부분에 잘 드러난다.
- ③ '명태의 오늘과 내일'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국민 생선" 명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⑤ '국산 명태가 사라졌다' 부분에 드러난다.

목표 1. 대상의 사실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사진 자료이다.

2. '명태 완전 양식 과정'이라는 매체 자료는 도표에 해당한다. '명태의 완전 양식 과정'을 일시별로 정리해 두어서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에 대한 설명이다.
 - ② 동영상 자료에 대한 설명이다.
 - ④ 도표 중에서 그래프와 관련된 설명이다.
 - ⑤ 그림 자료에 대한 설명이다.
3. 매체 자료는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자료이다. 그러므로 글의 내용과 관련성이 있으면서도 쉽게 독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매체 자료가 글 내용 외에 또 다른 정보를 담고 있으면 독자가 매체 자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4. 대상을 생생하고 실감 나게 보여 주는 매체 자료는 사진이나 동영상이다.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표층 수온의 구체적인 수치 변화를 제시하여 보여 주는 그래프이다.
5. 자료 (나)는 연구팀이 '살아 있는 명태 어미 고기'를 찾기 위해 노력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의 내용을 잘 보여주는 매체 자료이다.
6. (다)는 동영상 자료이다. 동영상 자료는 시각과 청각을 모두 활용하여 문자, 소리, 영상 등을 통해 복합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특징이 있다. 언어적인 정보보다는 영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매체 자료이다.

소단원 핵심 문제

• 본문 p.206

01. ③ 02. ④ 03. ③ 04. 동해의 수온 상승에 따른 우리나라 주요 어종의 변화(또는 주요 어종의 어획량 변화)를 나타내는 도표가 필요하다. 05. ③ 06. ⑤ 07. 동해에서 양식 과정에 적합한 명태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현상금을 걸어 살아 있는 명태 어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08. ③ 09. ⑤ 10. ① 11. ④ 12. 이 글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글이고 <보기>는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주장하는 글이다. 13. ④ 14. ③ 15. ③ 16. ⑤ 17. 명태의 수정란에서부터의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돕는다.

01. 이 글은 기사문으로 글쓴이의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사실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오답 해설

- ① 우리나라 대표 생선인 명태에 대한 기사문이다.
 - ② 기사문으로 객관성과 사실적 성격을 띠고 있다.
 - ④ 수온 변화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 ⑤ 기사문은 '제목-부제-전문-본문-해설'의 구조로 작성된다.
02. (가)는 기사의 제목과 부제, 전문 부분이다. 전문의 내용을 통해 제목의 의미, 기사의 주제나 기사를 쓴 목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03. (나)에 드러나듯이 명태의 이름이 다양한 것은 우리 식단에서 명태의 쓰임새가 많기 때문이다.
04. (다)는 동해의 연평균 표층 수온이 변함에 따라 포획되는 어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해의 수온 상승에 따른 어종이나 어획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도표를 함께 보여 주면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05. 매체 자료는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매체 자료의 적절성은 형태가 얼마나 다양한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글의 이해에 도움을 주느냐에 있다.
06. 이 글에는 동해 표층 수온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그래프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라)에 직접적으로 관련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 ② (나)와 관련된 자료로, 함께 제시한다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 ③ (다)와 관련된 자료로 제시하기에 적절하다.
 - ④ (라)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07. (다)를 보면 명태 완전 양식을 위해서 일단 건강한 어미 명태를 구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팀은 현상금까지 걸면서 어미 명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08. (마)는 표로, 명태 양식 사업의 과정이 현장감 있게 전달되는 자료는 아니다. 현장감 있는 자료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이다.
- 09. 부화한 어린 고기를 방류했다가 다시 잡는 것은 인공 부화한 고기들이 자연에 잘 적응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의 한 과정일 뿐 목적이 아니다.
- 10. (가)에는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연구팀이 연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연구팀의 어려움이 특별히 나타나지는 않는다.
- 11. <보기>의 자료는 어린 명태가 방류되는 동영상 자료이므로 (라)의 내용과 어울린다.
- 12. 이 글은 국산 명태 양식의 성공 소식을 알리는 글이지만, <보기>는 국산 명태 양식의 완전한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주장하는 글이다.
- 13. 글에 사용되는 매체 자료는 내용과 관련되어야 하며(관련성),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며(정보성),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만해야 하며(신뢰성), 글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데 효과가 있어야 한다(효과성). 그 외에 쉽게 이해되어야 하는 성질 등이 요구되지만 희귀한 자료여야 할 필요는 없다.
- 14. (가) 자료는 명태를 활용한 우리나라 음식 사진이므로 명태 관련 식단을 언급한 내용과 가장 잘 어울린다.
- 15. (나)의 자료는 대상의 구체적인 수치와 그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오답 해설

- ①은 사진이나 그림 자료, ②는 그림 자료, ④는 표의 형식으로 된 도표 자료, ⑤는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 자료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16. (다)는 우리나라 연해에서 잡히는 주요 어종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 17. 이 자료는 사진을 활용하여 명태 수정란이 성체가 되는 과정을 잘 보여 준다.

2 내가 보는 세상은 진짜일까

개념 확인 특목

• 본문 p.210

01. ⑤ 02. 동영상 자료 03. ⑤

- 01. 강연을 할 때 강연자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강연을 진행하므로 상호 작용이 많이 일어난다.
- 02. 매체 자료 중 사실성이 강조되는 자료는 사진과 동영상 자료이며, 이 중 특히 현장감이 극대화되는 자료는 동영상 자료이다.

36 | 5. 이해를 돕는 매체

- 03. 일반적으로 시각 자료를 먼저 제시하면 음성 언어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음성 언어를 먼저 제시하는데, 통계 자료처럼 화면을 같이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제시하기도 한다. 자료를 해석할 시간을 많이 주면 강연 시간이 늘어나고 청중이 지루해질 수 있다.

• 확인 문제 •

• 본문 p.212

- 01. ⑤ 02. ② 03. 어떤 대상을 볼 때, 필요 없거나 잘못된 배경지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04. ③ 05. ① 06. ⑤ 07.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임. 08. ① 09. ⑤ 10. ③ 11. 배경지식 12. ⑤ 13. ① 14. ④ 15. 첫 번째는 감각대로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감각에 배경지식을 적용하여 보는 것이다. 16. ② 17. ④ 18. ④ 19.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인다. 20. ① 21. ③ 22. ⑤ 23. ①은 강연자가 설명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어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01. 이 강연에서는 청중의 참여가 강연 내용을 보완할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② 착시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강연을 정리한 글이다.
- ③ 착시 현상이라는 시각 현상을 설명해야 하므로 시각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는 강연이다.
- ④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강연이므로 강연자의 개인적인 견해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 (가)에는 강연자의 자기소개와 심리학, 인지 심리학에서 다루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으며, (나)에서는 착시 현상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
- 03. (나)를 보면 착시가 어떤 대상을 볼 때 필요 없거나 잘못된 배경지식을 사용하는 바람에 실제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04. 착시 현상이 독특하고 흥미로운 것이라는 언급은 있었지만 중요하다고 언급하지는 않았다.
- 05. (라)에 제시된 매체 자료는 사진으로 시각 매체 자료에 해당한다. 이것은 착시 현상을 직접 보여 주는 자료로 강연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답 해설

- ② 도표 자료가 아니며 착시 현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지도 않다.
- ③ 착시 현상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기는 하지만 동영상 자료는 아니다.

④ 사진 자료로,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정리했다고 볼 수 없다.

⑤ 강연자의 경험과는 관련이 없는 자료이다.

06. (라)의 사진을 보고 500원 동전이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500원 동전이 다른 동전보다 크다는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07. (마)에 제시된 착시 현상에 작용한 배경지식은 두 가지임을 알 수 있다. 하나는 동전의 크기에 관한 배경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인다는, 원근감에 대한 배경지식이다.

08. 이 강연은 착시 현상의 다양한 예를 연속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착시 현상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09. 자료의 내용을 설명할 때 청중과 시선을 교환하면서 자료와 청중을 번갈아 쳐다보며 강연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오답 해설

① 자료를 활용하기 전에 자료의 내용이 정확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② 청중의 수나 강연하는 공간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자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자료는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시각 자료에서 적절한 색깔을 활용하면 더 효과가 높을 것이다.

④ 자료를 제시하는 목적은 청중이 강연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10. 사진의 배경인 철길 때문에 위의 막대가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멀리 있는 것은 작아 보인다는 배경지식의 영향을 받아 위의 막대가 더 길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11. 착시는 필요 없거나 잘못된 배경지식 때문에 우리의 뇌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12. 강연을 하면서 적절한 매체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청중들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강연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다. 하지만 설명하고자 하는 주제를 전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3. (사)에서 강연자는 청중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청중이 강연에 관심을 보이고 집중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강연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질문일 뿐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새로운 설명 대상이 아니라 착시 현상의 다른 예를 소개하고 있다.

④ 청중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강연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질문의 형식으로 바꾸어 전달

하고 있는 것이다.

⑤ 강연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묻고 있지는 않다.

14. A와 B는 실제의 밝기는 같지만 B가 더 밝아 보인다. 그림자가 드리우면 어두워진다는 배경지식 때문에 B가 더 밝게 보이는 것이다.

15. 착시 현상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사물을 보는 것과 배경지식을 적용해 보는 것 두 가지 사이의 불일치라고 할 수 있다.

16. (자)의 사진과 그림 자료는 우리 생활에서 착시 현상을 활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17. (자)의 매체 자료에서 문자 언어의 내용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이 아니라도 주의를 끌 수 있는 문구라면 예로 제시되기에 적합하다.

오답 해설

① 사진 자료이므로 시각 자료에 해당한다.

② 도로에 적용되었던 실제 사례이다.

③ 강연 내용과 관련하여 청중들이 참고함으로써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료이다.

⑤ 착시 중에서 도로 바닥의 글자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를 다루고 있다.

18. 강연자는 (자)에서 착시 현상을 우리 생활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그 예를 제시하고 있다.

19. 글자 윗부분을 아랫부분보다 두껍고 크게 하여 윗부분이 더 가까워 보이도록 유도한 것이다. 여기에는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인다는 배경지식이 영향을 미쳤다.

20. (자)의 착시 현상은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는 글자를 서 있는 것처럼 잘 보이게 하여 운전자들이 조심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준다.

21. 강연자가 착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자고 말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⑤ 착시 현상의 부정적 측면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② 착시 현상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④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비판이다. 강연자는 착시에 대하여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할 수 없는 현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판의 태도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22. (차)는 강연자가 착시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제시하고 청중에게 적절한 활용을 제안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23. ㉠은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매체 자료이므로 청중이 착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자료이다.

학습 활동 다지기

· 본문 p.218

이해 다지기 문제 1. ⑤ 2. ⑤ 3. ②

목표 다지기 문제 1. ⑤ 2. ③ 3. ③ 4. ④ 5. ③

- 이해 1.** 착시는 대상을 감각적으로 보는 것과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보는 것 사이에 차이가 나면서 생긴다. 즉 필요 없거나 잘못된 배경지식을 적용해서 실제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2. ‘가’는 실상은 같은 거리에 배열되어 있는 같은 크기의 동전에 대해 동전의 원래 크기에 대한 배경지식과, 멀리 있는 사물은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사물은 크게 보인다는 배경지식을 적용하여 멀고 가까운 거리를 사실과 다르게 본 착시 현상이다. ‘나’는 거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철길 사진을 참고하여 사물의 멀고 가까움을 짐작한 뒤, 멀리 있는 사물은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사물은 크게 보인다는 배경지식을 적용하여 사물의 길이를 사실과 다르게 본 착시 현상이다. 두 착시 현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배경지식은 멀리 있는 사물은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사물은 크게 보인다는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③, ④ 확인할 수 없거나 잘못된 정보이다.
- ② 원기둥의 그림자 방향에 위치한 네모 간이 더 밝아 보인 착시 현상에 적용된 배경지식이다.
3. 다른 착시 현상은 긍정적, 부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착시 현상이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 글자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 현상은 긍정적 영향을 주는 착시 현상으로 다른 착시 현상과 구별된다.
- 목표 1.** 이 강연에 사용된 매체 자료는 모두 착시 현상을 구체적,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 사진이거나 그림이다.
2. 이 강연에서 강연자는 자신이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착시 현상의 예로 매체 자료를 제시하여 청중에게 직접 보여 주고 있다.
3. 자료의 형태는 다양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다만 내용과 관련성이 있고 매체 자료를 통해 청중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이 강연은 착시 현상이 무엇이고 왜 일어나는지 설명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착시 현상에 대한 학생들의 인터뷰 영상은 매우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5. (나)에는 동영상과 사진이 매체 자료로 제시되어 있다. (나)에 그림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진과 그림으로 대상을 구체화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매체 자료를 활용하면 내용을 더 쉽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 ② 동영상 자료는 쉽게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있다.
- ④ 매체 자료는 강연자와 청중의 교감을 이끌어 내는 효과가 높다.
- ⑤ 강연할 때 내용에 따라 말로 하는 것보다 영상을 보여주면 더 이해가 빠른 경우가 많다.

소단원 핵심문제

· 본문 p.223

01. ② 02. ④ 03. ⑤ 04. 착시 현상이 더 잘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05. ④ 06. ⑤ 07. ② 08. 착시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한 채 일어나는 현상으로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09. ② 10. ② 11.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인식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한다. 12. · 공통점: 두 자료는 모두 시각 매체 자료이다. · 차이점: (가)의 매체 자료는 사진과 그림으로 설명 내용을 보충해 주지만, <보기>는 그래프로 설명 내용을 한눈에 보여 준다.

01. 강연은 공식적인 말하기로 강연자가 청중에게 필요한 정보나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말하기이다. 따라서 청중은 강연자에게 집중해야지 다른 청중의 반응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강연에서는 강연자의 생각이나 정보가 한 번에 많이 전달되므로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면서 들어야 한다.
- ③ 강연 내용을 예측하면서 듣는다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④ 강연 중에 주어진 매체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⑤ 강연자의 역량, 어조, 표정이나 행동에도 정보나 생각이 담길 수 있으므로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02. (가)에서는 착시의 긍정적인 영향도, 부정적인 영향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03. 착시는 우리가 그것을 인식했는지 못했는지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배경지식으로 인해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

04. (다)의 내용을 살펴보면 착시 현상이 더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 불을 끄고 한쪽 눈을 감고 집중하도록 했던 것이다.
05. (나)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을 언급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질문을 던져서 청중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② ‘철길 위의 막대’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시각 자료가 필요하다.
- ③ (나)에는 원기둥으로 인해 색의 명암이 달라 보이는 네모 칸과 관련된 시각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 ⑤ (다)는 (가),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06. (가)에서 착시가 생긴 원인은 철길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 위 막대는 멀리 있고 아래 막대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위의 막대가 더 길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어서이다.
07. B는 옆 네모 칸의 색 자체 때문이 아니라 원기둥의 그림자 때문에 배경지식이 작용되어 A보다 밝아 보이는 것이다.
08. 강연자는 착시 현상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옳다 그르다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09. (나)에서 시각 자료는 청중이 강연에 집중하면서 설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착시를 보여 주는 예에 해당하므로 강연 내용을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10. (가)에서는 착시 현상의 부정적인 측면은 다루지 않고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청중의 관심 유도 효과만 고려한다면 동영상 자료가 가장 효과적이다.
- ③ <사진 2>는 도로 위 글자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며 강조된다.
- ④ <사진 2>는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인다.’라는 배경지식이 작용하여 착시가 일어난다.
- ⑤ 글자가 도드라져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
11. (나)에서 강연자는 흥미로운 착시 현상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생활에 이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하고 있다.
12. (가)의 자료나 <보기>의 자료는 모두 시각 매체 자료이다. 하지만 (가)의 자료는 구체적, 사실적으로 대상을 보여 주는 사진과 그림이고, <보기>는 복잡한 수치를 간단하게 정리하여 보여 주는 그래프이다.

대단원 확인 문제

· 본문 p.227

01. ② 02. ② 03. 어미 고기와 어린 고기를 마구잡이로 잡아들였기 때문이다. 04. ④ 05. ⑤ 06. ③ 07. 수온에 따른 명태의 성장 결과를 보여 주는 도표 또는 그래프 자료 08. ⑤ 09. ④ 10. ③ 11. ④ 12. 500원 동전이 가장 크다는 배경지식과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인다는 배경지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13. ⑤ 14. ④ 15. ② 16. ① 17. ③ 18. ④ 19. ⑤ 20. 운전자들이 차의 속도를 늦추고 조심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 21. ① 22. 국산 명태가 대량 양식되어 우리 식탁에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다. 23. ③

01. 신문 기사에 의해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신문의 목적 자체가 여론 형성에 있는 것은 아니다.
02. (가)는 기사의 표제와 부제, 전문 부분이다. 이 부분을 보면 기사의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가)의 전문 부분에는 특별한 매체 자료가 필요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기사문으로 글쓴이의 주장이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 ④ 이 글은 우리나라 바다에서 사라진 명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담은 기사문으로 사회 비판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 ⑤ 기사의 대략적인 내용은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는 없다.
03.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명태의 어획량이 줄어든 것은 명태를 마구잡이로 포획했기 때문이다.
04. (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어종의 어획량이 달라졌고 그래서 명태도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한 눈에 보여 주기에 적합한 매체 자료는 우리나라 주요 어종의 어획량 변화 그래프이다.
05. 이 글은 국산 명태의 완전 양식 성공 과정을 보여 주는 기사문으로 글쓴이의 개인적 경험은 들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이 기사문은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
- ② (가)~(라)에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의 연구 과정이 드러나 있다.
- ③ 명태를 양식하기에 적절한 수조의 온도, 알맞은 먹이 등에 대해 과학적인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 ④ 명태 완전 양식 사업인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소재로 하고 있다.

- 06. (가)에는 연구팀이 국산 명태 어미를 구하기 위해 고생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07. 연구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는 도표나 그래프이다. 수온에 따른 명태의 성장 결과를 보여 주는 도표나 그래프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
- 08. (다)의 로터퍼 사진은 로터퍼가 무엇인지 보여 주고 있기는 하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매체 자료는 아니다.
- 09. 이 강연의 내용만으로는 준언어와 비언어적 표현이 사용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없을뿐더러 강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주제를 전달하는 언어적 표현이다.
- 10. 강연자가 착시 현상을 보여 주기 전에 불을 끄고 손으로 한쪽 눈을 가리는 등의 환경을 만든 것은 착시 현상을 더 부각시키고자 한 것일 뿐 착시의 절대적 조건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나)에 착시의 예로 독특하고 흥미로운 것들이 많다는 언급이 있다.
- ②, ⑤ (가)에서 착시는 어떤 대상을 볼 때, 필요 없거나 잘못된 배경지식을 사용하는 바람에 실제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④ (가)에서 '착시는 간단하게 말해 그렇게 보았다고 착각하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 11. (가)는 강연의 도입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강연 내용에 대한 소개, 강연자의 자기소개, 청중의 긴장을 풀어 주는 말을 통한 분위기 조성 등이 이루어진다.
- 12. 500원 동전이 가장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500원 동전이 가장 크다는 배경지식과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인다는 배경지식이 작용해서 같은 크기라면 500원 동전이 더 멀리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 13. 자료는 내용에 맞게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다. 하나의 자료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면 청중의 내용 이해를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다.
- 14. 그림자가 드리우면 어두워진다는 배경지식이 작용하여 원래 감각이 왜곡되며 착시가 일어난 것이다.

오답 해설

- ① (나)에 제시된 착시의 예는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닌 예이다.
- ② 빛의 굴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림자와 관련된 내용이다.
- ③ B가 밝게 보인다고 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아니다.
- ⑤ 거리와 관련된 배경지식과는 관련 없는 착시 현상이다.

40 | 5. 이해를 돕는 매체

- 15. 착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강연자는 사물을 정확히 보라는 등의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
- 16. (다)에 제시된 매체 자료는 설명을 위해 필요한 시각 자료이다.
- 17. (나)에서는 명태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의 의견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 ① (가)에는 명태의 난 발생 및 성장 발달 과정이라는 사진·그림 자료가, (다)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는 글자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 자료가 제시되고 있다.
- ② (가)는 명태 난 발생 및 성장 발달 과정을 화살표로 연결하여 과정을 보여 주기에 적합한 자료이다.
- ④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보이는 걸까요? 그 해답은 ~'에 잘 드러나고 있다.
- ⑤ (다)는 착시 현상을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여 사고를 줄이는 데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예를 보여 주고 있다.
- 18. (가)는 명태의 난 발생과 성장 발달 과정이므로 명태를 인공적으로 키워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과 관련성이 가장 높다. 이 자료를 통해 독자들은 명태 양식의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19. 명태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유전적 다양성이 있는 자연산 명태 어미를 확보해야 하며 질 좋은 수정란을 질병 없이 잘 키워 우수한 종자를 얻어야 한다. (나)에서 양식장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 20. (다)에서 제시한 착시는 바닥에 쓰인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는 글자를 서 있는 것처럼 보는 것으로,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다.
- 21. 사료를 개발한 이유나 명태의 완전 양식에 성공했다는 내용은 사료 사진이 없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은 전문가의 권위 때문에 독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 ③ (다)에서는 질문을 통해 강연의 내용이 어땠는지 등을 물으며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④ (라)에서 '신비의 도로'가 주변 환경에 의한 착시 현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 ⑤ 자신이 경험했던 교내 체육 대회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 22. (나)에서 글쓴이는 양식 명태가 대량으로 생산되어서 우리 식탁에 올라 우리가 국산 명태 맛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 23. 동영상은 사진, 그림에 비해 사실성, 현장감이 더욱 강화된 매체 자료로, (라)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